DESIGNING ADULT EDUCATION CURRICULUM TOWARD FORMATION OF GENDER-EQAUL KOREAN AMERICAN CHURCH COMMUNITY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Tae Ho Lee

May 2018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Tae Ho Lee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Dr. K. Samuel Lee, Chairperson

Dr. Namsoon Kan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8

ABSTRACT

DESIGNING ADULT EDUCATION CURRICULUM TOWARD FORMATION OF GENDER-EQAUL KOREAN AMERICAN CHURCH COMMUNITY

by

Tae Ho Lee

There are many numerous issues that are withheld in the church. This research identifies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conflicts in the church: the lack of female voice. In the past,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have lead to the loss of female voice and have often prevented them from expressing their beliefs. Hence, the social pathological phenomena stems from the androcentric/patriarchal culture. For example, the traditional belief that is structured towards the male figures needs to be restructured where women will have a voice through education. By providing feminist pedagogy and opening up curriculums in the church system, local churches will have more gender equality in the church community. Furthermore, increasing the amount of attention to women will not only empower women to voice out their opinions but also eliminate gender oppression in the church, creating a gender equality church community.

KEYWORDS: Church Conflict, Woman Voice, Androcentric Patriarchy, Feminist Pedagogy, Curriculum, Gender Equality Church Community

SUMMARY

The first chapter will be focusing on how local churches should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 curriculum and education on feminism, ultimately establishing will. This will allow the church to move away from patriarchal structure. Through this paper, I wanted to shine light to the issue of having a patriarchal centered church and stress the importance of bringing attention to feminism within the church.

Chapter 2 brings up the different ways curriculum can be developed in local churches to help increase female involvement in the church community in order to break down the traditional gender structure. One way is to not tolerate the patriarchal church, but instead, feminist theology needs to be opened up in order to transform the church to a more gender equal community. Secondly, the discrimination and suppression of gender that can be seen in the traditional education needs to be prevented by putting more emphasis on feminist education and alternative study methods. Finally, there needs to be a strong understanding on the Maria Harrison's theory to gain inspiration and to change the system within the church.

In Chapter 3, many sources were used to identity and bring awareness to the issues of gender discrimination. By analyzing the three-feminist perspective, it opens up many directions at which this topic can be taken by. The study indicates the problems that exists in the church due to the power that the churches possesses, the usage of language in the textbooks,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 image that are placed on women. The analysis of the three-feminist perspective addresses the problems by providing an alternative democratic model for the church.

Chapter 4 provides the purpose, direction, and educational tasks that helps with the development of a gender equal curriculum. Additionally, all of these aspects will lead local churches into the path of changing their old systems. Through the realization of knowing the vision of the kingdom of God and education, local churches can form a gender equal community. The educational goal is to create an identity for women, create awareness on feminist education, and develop leaderships. With the focus on feminist education, this will lead to more ministries and curriculums in this field.

Chapter 5 illustrates the research on feminist studies and the change in results. Also, the study shows many techniques that indicate how to approach the problem of the traditional beliefs in the church, creating a more gender equal community.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 (Introduction)

A. 연구의 문제 제기와 목적

나는 25 년 간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였다. 그 가운데 15 년 동안 나는 미국 서부 지역의 한인 이민 교회와 장로교 교단 노회에서 다양한 목회 사역(청년 담당, 주말 교회학교 교장, 지역교회 담임목사, 교단 노회 임원 등)으로 섬겼다. 나는 이 기간 중 교우들의 갈등과 교회 분열의 아픔을 경험한 한인 이민 교회에 부임하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처와 치유를 위하여 7 년간 목회 사역을 하였다. 나는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이민 교회의 다양한 갈등 문제를 경험하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움을 얻고자 실천신학적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들을 페미니스트(Feminist)적 시각에서 연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나는 그 과정에서 교회의 갈등 해결 과정이 비판적 성찰없이 지나치게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Androcentrical Patriarchy) 관점에 다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은 이민 교회 구성원 중 60 – 7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의 문제에 관하여 다룰 때,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이민 교회는 여성 지도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남성 지도자들의 고정관념(Sterotype)에 따라 처리되면서 도리어 여성 공동체 구성원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하여 나는 이러한 가부장제 문화에 노출된 이민 교회에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Voice)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성평등

의식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성차별적 교회의 구조와 제도를 바꾸도록 돕는 성평등 교육도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여성의 차별과 편견의 문제가 교회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은 단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교회 공동체의 비전을 파괴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교회 공동체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 존재로 창조된 것을 인식하고, 억압되고 파괴된 것을 함께 회복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 파괴는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으로 인하여 생겨난다. 이러한 가부장제 문화는 이 사회 뿐 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까지 광범위하고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하여 차별과 편견을 갖게 하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들을 형성하였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목소리 상실은 결국 여성 자신이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독립된 존재(Independent Self)'가 아니라,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존재(Dependent Self)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1]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성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차별과 억압적 교회 구조와 제도를 변혁하기 위하여 모든 영역의 목회에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Forming) 위한 전문 교육과정(Curriculum)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교육목회를 통하여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누구나 주체적인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의 도움을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페미니스트 교육(Feminist Pedagogy)을 중심 주제로 연구하려고 한다.

---

[1]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66.

그러므로 나는 이 연구를 통하여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성평등 교육과정(Gender Equality Curriculum)을 연구하고자 한다. 우선 나는 페미니스트 신학적 관점에서 선행 이론 연구를 중심으로 성평등 교육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한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나는 페미니스트 신학적 관점에서 가부장제 교회와 그 전통적 흐름에서의 교회 교육을 재개념화하여 인식하고, '하나님 나라'의 교육적 비전 속에서 성평등 교육의 가능성을 찾아 볼 것이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 이론을 기초로 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계획하고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 볼 것이다.

다음으로 나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 이론을 기초하여, 특정 교단이 발행한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재 분석을 통하여 교회가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교육 교재의 분석과 진단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성평등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과 진단은 협의적 의미의 성평등 교재 개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광의적 의미로서 교회가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성차별적인 커리큘럼을 해체하고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성평등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교육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 삼았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나는 교회의 5 가지 존재 양태와 과제들을 성평등 교육적 관점에서 재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성평등 교육의 과제들을 기초로 하여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 교육을 위해 과거의 성차별적인 교육 전통을 해체하고, 성평등 교육 커리큘럼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설계 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방법론

1. 실천신학적 접근

나는 이 연구에서 리처드 오스머의 실천신학적인 접근 방법론을 기초로 연구하고자 한다.[2] 리처드 오스머는 실천신학의 4 가지 핵심적인 과제를 경험적 과제, 해석적 과제, 규범적 과제, 그리고 실용적 과제 등으로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신학적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는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먼저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기술적-경험적(Descriptive-Empirical)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과제는 특정한 사건, 정황, 상황 안에서 우리의 패턴과 역할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적-경험적 과제를 말한다. 그 다음 단계로 그는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질문하는 해석적 과제(Interpretive)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어떤 패턴과 역학이 발생하는 이유를 더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다른 학문의 이론을 참고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적 과제를 지나 다음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규범적 과제(Normative)로 나아간다. 여기서는 특정한 사건, 정황,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신학적 개념을 활용하기, 우리의 반응을 인도할 도덕적 규범을 구축하기, '훌륭한 실천'으로부터 배우기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를 제시한다. 이러한 실천신학의 방법론은 위에 제시한 4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하여 실천신학적 학문과 교회 현장의 목회 사역 사이에 다리 놓기를 시도하였다.

---

[2] Richard Osme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 김현애 and 김정형 (서울: WPA, 2012), 10-11.

2. 비판적 문헌 연구

나는 이 연구에서 비판적 문헌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 방법은 기존의 자료가 연구되거나 만들어진 선행 연구의 문헌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 비판적 문헌 연구는 새로운 개념이나 현상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헌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나는 이 문헌 연구방법을 통하여 과거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문화 속에 영향을 받아 서술되었던 교회와 교육의 이해를 해체하고,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매우 적절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페미니스트 신학과 비판 교육학 등의 선행 연구자료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교회 공동체 이해, 여성교회, 동등한 역할과 위치의 여성 제자직, 성에 민감한 교육과 의식 방법, 성평등 교육, 활당제 여성 전문가의 커리큘럼 설계 등의 개념들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할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재정립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성평등 커리큘럼을 재구성하는데 좋은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나는 비판적 문헌 연구를 통하여 성평등 교육 목회 커리큘럼 연구에 적절한 개념과 이론 그리고 비판적 성찰과 재구성 등의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C. 용어 정의

1. 여성의 경험과 목소리

나는 여성의 자기 목소리 없음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의견을 수용한다. 그들은 여성들의 내면에 있는 감추어진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지 못하거나 그러한 내면의 소리와 다른 소리 사이의 갈등을 '여성의 목소리 없음'이라고 말한다. 이 여성의 목소리 없음 현상은 여성의 자기 주체성의 문제와 연결된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요한 주제이다.

크리스틴 뉴거(Neuger)는 *여성들을 위한 목회 상담* 이라는 책에서 "목소리의 중요성은 여성들의 잠재적인 건강함이라는 측면에서 과장될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3] 그는 이 책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주체적 자아 회복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목소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경험을 달성하고, 여성의 경험을 중요한 것으로 칭하는 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와 모델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성의 자기 목소리 표현을 단순한 언어의 전달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자아를 회복하여 주체적이고 상호 독립적이고 동등한 관계를 맺어가는 한 개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2.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나는 여성의 자기 목소리 상실의 문제는 남성주의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에서 시작 되었다고 본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그 부정적 영향으로 대립적 이원론을 형성하였고, 서로 다름의 차이를 대립과 우열의 이분법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식론은 원시 사회에서 고대 사회의 형성에 있어서 남성중심의 위계적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가정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이 종속하는 형태로 고대부터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남성주의 가부장제는 교회의 신학과 신념 그리고 교회 체제와 구조까지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으로 교회는 다양한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고 남성중심 가부장제 신학과 전통을 형성하여 여성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강요하였다. 나는 이러한 반성을 기초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 차별과 억압의 문제를 페미니스트 신학적 관점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3] Christie Cozad Neuger,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 상담*, trans. 정석환 (서울: 한들 출판사, 2002), 119.

3. 성평등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조건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공동의 발전과 그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념이다. 성평등의 초점은 여성과 남성이 서로 상대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통하여 상호 발전과 상호 만족을 얻도록 도와주고, 성차별 문화와 교육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평등의 실현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평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이다. 일차적인 평등은 성별의 제약 없이 참여의 기회를 얻는 '기회의 평등'이다. 그러나 다음으로 기회의 평등이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평등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것을 '조건의 평등'이라고 한다. 이 조건 평등은 평등하게 주어진 기회가 활용되기 위해서 성별의 차이가 없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평등을 보장하지 못할 때 '결과의 평등'을 강제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mative Action)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법률 제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4]

일반적으로 양성평등의 실현 정도를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다. 그것은 양성평등지수(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그리고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등이다.[5]

양성평등지수(Gender Related Development Index)는 국민소득, 평균수명, 성인 문자해독률, 초, 중등학교 등록률 등에서 나타나는 남녀평등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결과이다. 한국은 세계 140 개 중에서 27 위로 이 지수는 아시아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리고 여성권한척도(Gender

---

[4] 김경희,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서울: 푸른사상, 2004), 7.

[5] 임희숙, "한국 교회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독교교육 과제,"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1 (January, 2009): 271-272.

Empowerment Measure)는 여성 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 남녀소득차 등을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는 결과인데, 한국은 세계 80 개국 중 59 위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는 여성과 관련된 이슈들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여성 이슈를 정책의 기본 흐름에 통합시켜 다루는 관점이다. 젠더적 관점이 정책결정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여성관련 사항은 별도로 처리되거나 정책 이슈로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여성주류화는 남성지배적인 관점과 정책결정 관행에 대한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전환과 개혁을 요구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성주류화는 양성평등 교회 교육 정책 수립에서 교육목회 커리큘럼 디자인과 실행까지 일관적인 진행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4. 성평등을 위한 예술적 커리큘럼

커리큘럼(Curriculum)이라는 용어는 '뛴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Currere)에서 유래하였다.[6] 이 말은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정된 코스를 뛰는 것처럼 커리큘럼은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해진 코스를 의미한다.

커리큘럼 전문가 타일러(Taylor)는 교육을 이루는 모든 학습 구성 요소들의 총체가 커리큘럼이라고 정의한다.[7] 기독교 커리큘럼을 제시한 와이코프(Wyckoff)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들의 삶의 소개, 수용, 실현되도록 교회의 교육 사역에 잘 사용되도록 고안된 의사소통의 통로가 커리큘럼이라고 정의한다.[8] 그리고 밀러(Miller)는 기독교교육 커리큘럼을 협의한 개념에서 광범위한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한다.[9] 그의 커리큘럼은 (1) 학습될 성경 본문, (2)

[6] Roger W. B. Jr., "Curriculum Alternative for Christian Education," *Review and Expositor* 90 (May, 1993): 480.
[7] Marvin J. Taylo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158.
[8] Wyckoff, D. C., *Theory and Design of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P.E: The Westminster Press, 1961), 17.
[9] Donald E. Miller, *Story and Context: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78.

학습을 위해 가이드로 사용될 프린트물, (3) 교수자료와 학생의 경험을 포함하는 교수 계획, 그리고 (4) 공동체의 교육방향을 제시하는 커리큘럼 구성 요소들 전체 세트 등이 포함된다.

마리스 해리스(Marris Harris)도 이러한 광의적 의미의 커리큘럼을 수용한다.[10] 그러나 그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전통적 커리큘럼의 설계보다는 예술가 작업으로서의 커리큘럼 설계로 이해를 한다. 그는 커리큘럼 설계를 위하여 5 가지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1] 첫째, 우리는 교회에 속한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교육의 커리큘럼과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구별해야 한다. 둘째, 교회 사역의 커리큘럼은 다양하다. 셋째, 교육의 주제와 내용은 다양한 계층을 가지고 있다. 넷째, 커리큘럼은 제사장적이고 예언자적이며 정치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커리큘럼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명시적 커리큘럼과 내재적 커리큘럼, 영의 커리큘럼이다.

나는 마리아 해리슨이 제안한 교회 목회를 위한 커리큘럼 이론 속에서 성평등적 관점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성평등을 위한 예술적 커리큘럼(Art Curriculum for Gender Equality)'이라고 한다.

D. 청중대상

1. 성평등 교회 공동체 비전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

이 연구의 일차적인 청중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회 비전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다. 오늘날 세계는 성평등 정책과 교육을 통하여 여성을 경제성장과 발전에 소중한 국가 전략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12] 이것은 느리지만 세계가 성주류화 정책을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세계 환경 속에

---

[10] Mar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교육목회 커리큘럼,* trans. 고용수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7), 74.

[11] Ibid., 76-82.

[12] 김행, "양성평등, 왜 필요한가?"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November, 2014): 13-32.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성평등 정책과 제도 그리고 법률이 적극적 조치로 점차적으로 재정되고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 교회의 목회자들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왜곡된 교회의 모습을 해체와 재구성을 통한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 숨겨진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교회의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방해 받았다’는 자기 고백적 성찰과 회개를 통하여 시작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성평등 공동체로의 변화 모색은 의도적인 성평등 교육정책 수립과 계획적인 교육과정 개발, 지속적인 교회 공동체의 실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성평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목회적 실천적 고민을 하는 목회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것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교회의 해체와 재개념화를 위하여 페미니스트적 교회 신학과 성평등 교육이론을 설명하고, 성평등 교육과정(Art Curriculum for Gender Equalty)을 제시하여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에 교육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목회자들은 지금까지의 교회 교육의 전통 속에서 페미니스트적 교회 공동체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2. 성불평등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교회 공동체의 남녀 지도자들(장로, 안수집사, 권사)이 이 연구의 청중이다. 그들은 성평등 교육과 정책 그리고 사회적 제도와 구조의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사회와 교회 전통의 가치와 구조 속에서 이중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갈등하는 남자와 여성 평신도 지도자에게 잘못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와 가르침을 교정하고 수정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성불평등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성평등 제도와 구조 그리고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우도록 도울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교회의 여성 사역을 주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역에 주류라는 인식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교회가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서 성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 교육적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회중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양한 계층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회중까지도 청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교회의 회중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좋은 신앙적인 가치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주체가 아니라 관객으로 수동적인 참여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성평등 커리큘럼을 계획할 때,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층적인 사람(성, 인종, 계급, 나이, 장애 등)들이 활당제로 참여 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다층적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경험들을 공유하고 각각의 독특한 인식 방법을 고려한 성평등 사역과 교육이 개발되는 과정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성평등 커리큘럼의 제시는 회중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혹은 예수의 제자로서 구체적으로 응답해야 하는 과제의 실천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는 교회의 정체성과 대안을 찾는 목회자들과 성평등을 향해 나가는 세상과 교회 속에서 갈등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 회중들에게 도전과 관심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 연구의 제한성과 공헌

1. 연구의 제한성

첫째, 한국의 장로교 예장 통합 교단의 항존직 교육 교재만 가지고, 전체 한국 교회의 성평등 교육 상황을 진단하고 분석한 것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는 교회에서의 성평등 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 교단의 항존직 교재만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제한적 자료

사용은 전체 교회의 성평등 교육 현황을 진단 및 분석 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료를 통하여 한국 교단과 교회 안에서 성평등 의식과 성불평등 제도 그리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과정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들을 교육하는 지역 교회의 지도자 교재의 교육 커리큘럼이 성평등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실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성평등 교육 커리큘럼 연구는 지역 교회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지역 교회의 모든 목회 교육 활동을 성평등 관점에서 성중립적이고, 성에 민감한 교육적 비판을 할 수 있는 좋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구제적인 새로운 대안이 아니라, 그 동안 수행해 왔던 모든 교회의 교육 활동 가운데 성불평등한 것을 버리고, 성평등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찾아 재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회 공동체가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평등 교육만으로 제한하였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성불평등의 문제 뿐 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종(Race), 계급(Level) 그리고 장애(Disability), 나이 (Age), 종교(Religion), 문화(Culture) 등 다양한 차별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한 차별과 억압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성차별의 문제가 숨겨진 고정관념의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회 교육 과제를 개발하는데 그 한계를 두었다.

넷째, 성평등(Gender Equality)의 문제를 다룰 때, 남성과 여성 그리고 LGBT(동성애자와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 젠더)까지 포함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는 남성과 여성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 그것은 연구할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

2. 연구의 공헌

a. 성평등 교육에 대한 교회 교육의 민감한 관심

지금까지 교회 교육은 성평등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실천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차별과 억압을 재생산하고 있었다는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에 의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교회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성차별과 억압의 문제들을 피부적으로 접하기 전까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말한다. 그리고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교회는 자신들의 권력과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힘과 권력으로 그 동안 이런 성차별과 억압의 문제들을 은밀하게 숨기거나 은폐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교회 교육에서 활발한 페미니스트들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교회 교육의 개념과 이론들을 해체하고, 재개념화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성주의 기독교교육'라는 페미니스트 교회 교육의 이론적 재정립이다.[13] 이러한 연구들은 교회 공동체가 교육의 영역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도움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교회 교육 과정에 성평등 의식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회는 교육 목회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더 가까워지게 된다.

[13] 배은미,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2014), 15.

b. 성평등 교회 교육 제도와 구조 개선을 위한 의식 변화

이 연구는 성평등 교육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 나가기 위하여 다층적인 구성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다층적 구성원들은 교회의 제도와 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성원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청취를 기초로 하여 성평등 공동체의 교육 목적은 진술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진술은 다층적인 구성원들의 청취와 교육적 사명으로 교회 구성원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속에서 논의와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목소리들이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과제를 반영하는 단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술적 커리큘럼이 계획되는 단계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성불평등한 제도와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커리큘럼 개발의 과정은 보다 구체적인 변화의 과정에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연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커리큘럼 개발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불평등의 의식과 제도 그리고 구조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c. 지역 교회 공동체가 손쉽게 성평등 교육 과정 계획과 수립

이 연구의 초점은 가부장제적 교회가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 형성되고 변형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교육 과정이 성평등한 교육 과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부장제적 문화 속에 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인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보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 문화에 기초한 제도와 구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성평등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교회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새로운 성평등 교육 목표와 내용 그리고 방법으로 이끌어 가기 쉽도록 익숙한 교육 과정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가 제시하는 예술적 교육 과정 개발의

첫번째 단계는 ‘묵상’이다. 이 단계에서는 커리큘럼 개발자들은 다층적인 교회 구성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자들은 전수된 교회 교육에서 성차별 그리고 편견과 억압이라는 성불평등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구성원들이 문제 의식을 갖도록 도울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페미니스트 신학적 관점에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목적 진술을 하고 그것을 기초하여 버릴 것과 유지할 과제들을 교회 구성원들이 설정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유지할 과제로 선택된 것들은 창조적인 과정을 거쳐 성숙된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제시되고 새롭게 사역될 것이다.

이러한 예술적 성평등 교육 과정 개발은 새로운 성평등 교육 과정 개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낯설게 여기지 않고, 보다 친근하게 변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지역 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전수되어 오던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보존하고 유지할 것들을 자료 삼아 만드는 과정을 이 연구에서 제시할 것이다. 그럼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다 쉽게 교회 공동체의 담론을 모으고, 목적을 진술하고, 전수된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보다 새로운 과제로 재형성한다면, 모든 지역 교회에서 보다 손쉽게 예술적 성평등 커리큘럼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Chapter II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이론
(Curriculum Theory for the Gender Equality Church Community)

A. 성평등 교회 공동체

1.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교회 해체와 재개념화

20 세기 후반부터 교회 안밖에서는 '교회란 무엇인가? 또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가부장제 교회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질문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하여 그 본래의 모습이 훼손되고 왜곡되었다'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점차 확산되었다.

게르하르크 로핑크(Gerhard Lordfink)는 그의 저서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비유를 재해석하였다.[14] 그는 여기서 교회는 '영광의 교회론'을 버리고, "사람에게 수긍될 수 있는 사회 질서의 삶을 사는 공동체이어야 한다"고 그 뜻을 새롭게 조명하였다.[15]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번영해서는 안되며,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간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16] 그는 같은 책에서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전승 가운데 가장 널리 증언된 전승에 속한다"라고 전제하고, 예수가 바라는 것은 '서로 섬기는 공동체'라고 주장하였다.[17]

이러한 가부장제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그 동안 교회가 주장한 교회 본질와 구조 그리고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다양한 시각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하여 가부장제 교회의 왜곡된 모습을 발견하고 문제 의식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에게 의하여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교회와 그것을 지지한

---

[14] Gerhard Lordfink,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trans. 정한교 (서울: 분도출판사, 1996), 115.

[15] Ibid., 116.

[16] Ibid., 119.

[17] Ibid., 88.

신학적 연구들을 해체하고 재해석하여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게 하였다.

특히 카톨릭 여성주의(Feminist) 신학자 피오렌자(Elisabeth Schusseler Fiorenza)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해체적 질문을 하면서, 그는 여성의 성직자화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탈성직화를 주장하였다.[18] 그는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로서의 교회, 성스러운 종교인과 세속인, 교회와 세속 세계, 성직과 평신도 계급, 이성적 존재 남자와 제 2 계급 여성, 수녀와 평신도 여성으로 위계화 계급하는 가부장적 교회 모델에 항거하였다. 그는 비판적 대안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하고 서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본질적인 성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성과 속, 교회와 세계, 남성과 여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고 연대하게 할 뿐 만 아니라, 어떤 직무도 평신도와 성도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 평등한 사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것을 "참여적-포용적 교회 모델"이라고 불렀다.[19] 그는 이러한 해체적 질문, 곧 교회의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질문을 통하여 예수 운동의 공동체 원형에 가깝도록 재개념화 하도록 하였다.

페미니스트 신학자들 중에는 교회의 '권력과 힘'의 행사를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교회에서의 권력과 힘은 교회의 위계적 위치에서 나오는 것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유하고, 그 위치는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과 힘은 전통교회 안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과 복종 형태의 관계에서 신적 권위로 행사되게 하였다. 그러나 도르테 죌레(Dorothee Solle)는 이러한 위계적 힘과 권력을 비판하고, "나누어지는 힘만이 선한 힘이다. 진정한 힘은 한 사람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20] 그는 이러한 권력과 힘의 악성을 고발하고, 그 동안 행사해 왔던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전통교회의 권력과 힘의 문제점을

[18] 정애성, "E.S. 피오렌자의 동등자 제자직," *여성신학* 27 (Spring, 1999), 92.

[19] Elisabeth Schusseler Fiorenza, *Discipleship of Equals; A Critical Feminist Ekklesia-Logy of Liberatio*n (NY: The Crossroad Company, 1993), 213.

[20] Dorothee Solle, *Lieband Arbeit 사랑과 노동,* trans. 박순경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55.

비판하였다. 또한 레티 러셀(Letty M. Ressell)은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출애굽한 공동체로 재개념화된 교회의 모습을 '원형탁자'의 은유로 설명하였다.[21] 이 은유는 윗사람의 자리와 아랫사람의 자리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폐쇄적이고 위계적 탁자와 달리,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탁자를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가부장제 교회의 패러다임에서는 봉사, 성직, 주권 등이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원탁의 교회 공동체 패러다임은 '스스로 하도록 힘을 불어 넣어줌, 멘토가 되어 후원해줌, 동반자가 됨'등의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 원은 조화와 일치라는 교회의 본질적 가치인 '평등 교회 공동체'의 상징성을 잘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가부장제 교회에 대한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해체 질문과 연구들은 오늘날 교회 모습이 초기 예수 운동에서 시작된 교회의 원형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인 위계적 교회의 모습으로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해체적 질문 이후에 다시 대안 제시를 통하여 '권력과 힘을 동등하게 나눌 수 있는 평등한 교회 공동체'로 새롭게 건설해 나가야 한다는 교회의 재개념화 과제를 제시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2. 성평등과 교회 공동체의 원형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성서에서 성의 억압과 차별을 제거하고, 예수 운동 당시 교회 공동체의 원형과 사역을 수행하는 모습을 찾으려는 비판적인 연구들을 한다.

초대교회 탄생 기원은 사도행전 2 장에 등장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시작된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박순경은 "사도행전 2장 17-21절은 요엘 2장 28-32절의 인용인데,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날들에 모든 육체에게,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지리니, 이들의 영의 능력을 받아야 예언하게 되리라"라고

---

[21] Letty M, Rusell, *Church in the Round;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Church*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56-57.

하였다.[22] 여기서 그는 '예언한다'는 구약적 직분은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사도 직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력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여되어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사도 직분에 동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교회 공동체의 근원이 '어머니'라고 호칭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도행전 2 장에 함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여성 명사인 '루아흐'라고 사용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중성 명사로서 프뉴마로 표기 되었다고 주장한다.[23] 그리고 그는 이러한 성령에 대한 성의 변화는 교회 공동체의 성 정체성이 찾는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인간 생명체 '네페쉬'(창2:7)가 영성적 의미를 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진 성령은 창조된 '네페쉬' , 즉 자연 인간의 종말론적 인간성의 완성을 관장하는 분으로서 새 공동체와 새 생명의 '탄생 어미'라고 주장한다.[24] 이러한 성령의 여성성의 재발견은 교회 탄생의 본질 속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동시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성서 해석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동등한 성(Gender) 주체성이 본래부터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교회 탄생을 시작한 성령은 어느 한 성이 우월하거나 열등하여 주도하거나 지배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그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 같이 동등한 힘과 권력을 가진 주체적 존재(Independent Ego)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원한다. 이러한 성서의 재해석을 통하여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예수 운동 당시의 교회 공동체 원형의 모습은 '여성과 남성 모두가 평등한 힘과 권력을 나누는 성평등 공동체'를 재개념화였다. 그리고 초기 예수 운동의 성격을 피오렌자 (Elisabeth Schusseler Fiorenza)는 '평등한 제자직 공동체'로 규정하고, 교회에서 남성을 '사도적 교회' 개념 혹은 '사도적 전승' 개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In Memory of Her* 라는 책에서 그 동안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

[22] 박순경, "여성신학, 교회개혁, 사회변혁," *한국여성 신학* 42 (June, 2000): 41.

[23] 박순경, *통일 신학의 여정* (서울: 한울 출판사, 1992), 261-290.

[24] 박순경, "여성신학, 교회개혁, 사회변혁," 43.

사도 이해를 해체하고, 초대 교회에서 남성 사도들과 동역한 여자들, 즉 이들은 평등한 제자직분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재개념화하는 논증을 하였다. 그는 '의심의 해석학'(Hermeneutic of Suspicion)을 통하여 남성중심의 성서 편찬 과정에서 사도적 제자 직분과 증언의 권위를 여성 사역에서 배제하고 소외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25] 이러한 재해석은 사도적 교회에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고 평등하게 사도적 공동체로 증언하는 사역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연구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원형적인 모습을 찾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동등한 제자로서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 그들은 성령에 의해 성차별이 없는 주체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원형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등한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등한 힘과 권력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의 권위와 힘은 성령에 의해 다층적인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고, 어떤 이유라도 한 성에 의해 지배되고 억압되는 것은 교회 원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교회 원형의 모습을 찾고 복원하는 연구를 통하여 가부장제 문화 속에 그 교회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좋은 신학적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러한 신학적 작업들에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 모습이 원시 교회의 영적 원형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오늘날의 가부장제 교회의 무엇이 어떻게 훼손되고, 어떻게 왜곡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3. 성평등 교회 공동체 모델과 여성교회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가부장제 교회의 성 차별적 모습을 해체하고 원시 공동체로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그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특히 피오렌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

[25] Elisabeth Schusseler Fiorenza*,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 (NY: The Crossroad Company, 1994), 41.

교회의 위계적 구조와 차별 제도를 극복하기 위해 예수의 평등한 제자직 원리에 따라서 구성된 새로운 대안 교회로서 '여성교회(Wo/men-church or Ekklesia Gynakion)'를 주장하였다.[26] 이러한 여성교회는 "부자, 권력자, 연장자, 남자, 성직자 중심의 가부장적 위계적 모델이 아니라, 가난한 자, 힘 없는자, 연소자, 여자, 평신도가 대접받는 포괄적 참여적 모델"에 입각해 세워진 상상적 교회 이름이라고 그는 설명한다.[27] 처음 '여성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오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여성이 남성 속에서 동일시되는 것을 맞서는 개념으로서 사용하였다.[28] 그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Ekklesia)'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역동적인 용어'인데, 성서에는 하나님 앞에 모인 회중, 즉 '교회'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하였다. 그는 가난한 약자들의 대부분을 이루는 여성들과 의존적 어린이들이 온전히 포용될 때에야 동등자 제자직을 구현하는 에클레시아가 역사적 실재로 존재하리라는 의미에서 '여성'을 부치게 되었다고 하였다.[29] 그리고 그는 평등적 모델로서 여성 에클레시아를 이미 사회와 교회에 존재하지만, 완성되지 않고 실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것은 여성들의 교회임을 전달하는 해석학적 방법이자 언어적 도구일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지금까지 다른 시각을 말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나라, 즉 바실래아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교회는 "변두리가 아니라, 정치적 실재이면서도 성서적 종교 페미니스트 운동과 동일시 되지 않으면서 그러한 목표 아래 해방 투쟁을 하는 흩어진 '약자들의 힘'을 모으는데 필요한 '공동의 토대'"라고 말하였다.[30]

이와 같은 여성교회 모델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교회가 해체하고 재개념화하는 대안적 교회 모델로서 구체적이고 실천적 목표를 가진 성평등 교회 공동체와 그 지향점이 같다고 나는

---

[26] Elisabeth Schusseler Fiorenza, *But She Saint; Feminist Practic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Boston: Beacon Press, 1992), 5-7.

[27] 정애성, 93.

[28] Ibid., 94.

[29] Ibid., 225.

[30] Elisabeth Schusseler Fiorenza, *Discipleship of Equal,* 367-72.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가부장제 문화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자기성찰을 위하여 이러한 페미니스트 신학의 연구들이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그가 속한 지역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서 '여성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 공동체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지 아닌지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 교회를 위한 신학으로 인하여 교회의 왜곡과 편견 그리고 차별을 통한 억압의 결과로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갈등하고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부장제 교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신학적 질문과 해체 그리고 대안을 통하여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다음 몇 가지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가부장제 교회인지 아니면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인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힘과 권력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힘과 권력이 사용하는 주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이고 성찰적 질문을 통하여 성평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교회 전통 신학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영향으로 성차별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제공하였는지를 비판하고,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피미니스트 신학 연구의 결과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신학적 자원은 끊임없는 가부장제 신학의 강한 도전에 맞서기 위한 좋은 무기이다. 이것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원형을 발견하고, 가부장제 신학의 왜곡과 은폐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하나씩 바꿔 나가는 싸움을 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은 재개념화 된 여성 에클레시아 교회 모델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통하여 성평등 공동체의 정체성과 비전을 세상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힘과 동기를 제공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연구와 자료 개발은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 내용 등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신학의 도움으로 나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와 동등한 제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신학적 이론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 이해

1. 성평등 교육(Feminist Pedagoy) 배경과 이론

페미니스트 교육론은 미국과 유럽의 여성주의 운동의 1 기가 끝나고, 1960년대 2 기 페미니스트 운동이 진행되던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이 교육에서 여성에 대한 불평등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들은 여학생이 남학생들에 비해 불평등하게 교육 혜택을 받아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학교 교육이 다양한 측면에서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생산 혹은 재생산하는데 공헌 하였는가?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31] 그리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새로운 교육 이론인 페미니스트 교육론(Feminist Pedagogy)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교육론은 교육에서 여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모든 사회 관계에서 나타나는 남녀 불평등과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회 제도와 구조의 남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는데서 시작되었다.[32] 이러한 교육론은 교육(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페다고지(Pedagogy)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가르침의 의미만이 아니라, 비판과 미래에 대한 비판적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33] 또한 이것은 "반성차별주의, 반위계질서주의에 토대를 둔, 여성의 경험, 즉 여성이 억압을 받음으로써 겪는 고통과 그 고통을 물리치기 위해 발전시켰던 강인함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다.[34]

이러한 교육 이론은 여성주의의 발전과 비판 교육의 영향으로 1980년에 들어와 하나의 중요한 교육 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특히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Radical Feminism)은 여성이 교육에서 남성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하고,

---

[31] 신미식, "여성해방 교육론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6 (May, 1995): 184.

[32] Ibid., 185.

[33] Ibid.

[34] Berenice Fisher, "What is feminist Pedagogy?" *Radical Teacher* 18 (August, 1981): 20.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이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이론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억압으로 보고, 이러한 지배 구조를 가부장제(Patriachy)로 규정한다. 이런 입장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와 여성의 재생산 능력(Biological Reproductivity)이 여성의 열등한 위치를 가져온다고 보고, 억압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위해 여성들만의 분리된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35] 또한 이 이론은 여성의 특성(Nature)과 경험의 긍정적인 차원들, 즉 아이를 키우고 남자와 여자가 어울려 살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열정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36] 더 나아가서 급진주의적 여성 해방 이론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인식의 방법과 도덕적 추리력 그리고 배우고 지식을 획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이 교육 이론은 남녀 불평등의 문제를 우선시 하면서 구조적 해결을 모색해 온 많은 여성 교육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주장한 여성성의 강조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특성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가치부여 등은 실제적 페미니스트 교육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37]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비판 교육 이론의 토대를 마련한 사람은 그림시(Antonio Cramsci)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교육 이론가는 보울즈(Samuel Bowles)와 긴티스(Herbert Gintis)였다. 그들은 교육이 어떻게 자본주의 체체를 유지시켜 주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에 의하면, 학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계층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계급 위치를 받아들이게 하고 적합한 일의 훈련을 쌓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숨겨진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38] 그들이 이러한 숨겨진 커리큘럼을 통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가치, 정신, 행위를 내면화하고, 무리없이 위계적으로 구조화된 자본주의 제도로

[35] Carmen Luke & Jennifer Gore, *Feminism and Critical Pedagogy* (NY: Routledge, 1992), 139.
[36] Ibid., 145.
[37] 신미식, 18.
[38] Kathlee Weiler, *Women Teaching for Chang: Gender, Class & Power* (South Hadley, Ma: Bergin & Gavey Publishes Inc., 1988), 8.

통합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보올즈와 긴티스의 영향을 받은 지루(Giroux)는 그들을 비판하면서, 인간 주체의 역할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교사와 학생 등 인간 주체가 그들의 존재 조건을 형성하고 재생산하기 위해서 특정한 역사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올즈와 긴티스를 비판하였다.[39] 이러한 비판 교육 이론은 교육에서의 성차별 이중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명시적 교육 과정의 성등평 뿐 만이 아니라, 숨겨진 교육 과정의 성차별을 찾아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파울로 프레이리(Paulo Freire), 아이러 쇼(Ira Shor) 등은 비판적 교육 이론을 구체적인 교육의 현장에 적용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특히 프레이리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은행식 교육(Bnaking Education)에서 문제 제기식(Problem-posing Education) 교육으로 발전시키고 평등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와 대화식(Dialogue)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다.[40] 이 대화식 교육 방법에서 대화는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의 세계가 만나는 일이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과 새로운 지식, 가치 그리고 문화를 '함께' 생산해 가는 과정이다. 그는 구체적인 대화식 교육 방법으로 발견 카드와 문답법 등을 제시하였다.[41] 이 발견 카드는 글자나 개념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그림 카드(발견 카드)를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이 때, 이 카드는 학습자들이 알고 있거나 익숙한 그림 카드이다. 그 카드가 학습자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학습자는 그 그림 카드와 관련된 이야깃거리를 나누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와 경험을 상호 교환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기억과 이야기 그리고 의미들을 나누면서 다른 의미로 재창조를 하게 된다. 파울로 프레이리는 이러한 그림 카드를 사용한 문제 제기식 대화 학습 방법을 포르투칼 식민지에서 해방된 아프리카 국가인 상투메프린시페에서 직접 교재에 담았다.[42] 그리고 이

---

[39] 신미식, 190.

[40]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NY: Continuum, 1981), 71.

[41] Ibid., 77.

[42] "프레이리와 대화하기," Tistory, accessed January 10, 2017, http://www.nomadlab.tistory.com/m/59.

교육 방법은 읽기와 토론하기 그리고 쓰기의 과정을 거쳐면서 학습이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교사는 질문하고 학습자는 대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방법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흔들고, 자신을 자각해 가도록 적절하게 대화를 진행한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교사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들 사이에 대화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촉진됨으로써 학습이 일어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의미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유용한 교육 방법이다. 이러한 학습 방법은 의식화 하기에 매우 좋은 학습 방법으로서 문화에 의해서 강요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의식을 갖도록 돕는 학습법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식 교육 방법은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예술적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2. 성평등 교육의 방향과 특징들

성평등 교육은 형식적 교육 기회 평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성불평등이 사리지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러한 형식적 교육 기회의 평등이 가부장제적인 가치와 의식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한다. 그 대신 성평등 교육은 잠재적인 인간의 능력이 실현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성평등 교육은 모든 인간의 잠재된 능력이 어떤 성적 차이 때문에 억압과 차별받아 능력을 제한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에 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교육이다.

성평등 교육은 성 중립적이고, 성에 민감한 교육 방식이다. 휴스톤(Houston B)은 성평등 교육을 낮은 단계의 성중립 교육과 높은 단계의 성에 민감한 교육이라고 말한다.[43] 그는 교육에서 낮은 단계의 성평등 교육은 성 차별적인 형식들을 제거하고, 동일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 말한다. 그 다음 단계 성평등 교육은 성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중립 교육이 교육 상황에서 복잡하고

[43] Barbar Houston, "Gender Freedom and the Subtleties of Sexist Education," *Education Theory* 35 (November, 1985): 360.

미묘한 성편견에 놓였을 때는 성편견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성에 민감한 교육 방식이다.

성에 민감한 교육은 성 중립적 교육 방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효과적인 교육 방식은 수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 조치로써 성을 고려하여 학습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은 '성을 무시하거나 성 차이를 제거함으로 성평등에 도달하기 보다는 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성평등에 도달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는 교육 방식이다. 이러한 성평등 교육은 성평등 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교육의 균등한 기회 뿐 만이 아니라, 그 교육 과정과 교육의 결과까지 고려한 교육이다. 그러므로 성평등 교육은 성중립 교육과 함께 성에 민감한 교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 방향과 방식으로 인하여 성평등 교육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성평등 교육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을 한다. 성평등 교육은 현 교육제도 안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은 인정하면서도 숨겨진 남성중심적 가부장제 요소들에 대하여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 동안 교육 제도는 남성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남성중심의 가치관을 전달하고 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다. 또한 교육 과정 안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경험과 가치만 옳고 정당하며, 여성 자신의 경험, 역사, 그리고 가치는 열등하고 비합리적인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을 한다. 이것에 대하여 성평등 교육은 여성들에게 가부장 가치와 의식을 무너뜨릴 힘을 부여하고 좀 더 인간적인 사회 질서를 창출하고자 행동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호 생산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 맺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려고 노력한다.

둘째, 성평등 교육은 남성과 다른 여성의 지식 획득 방법에 정당성을 인정한다. 페미니스트 교육 이론가들은 남성의 지식 획득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들은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식 획득 방법인 그들의 느낌, 감정, 그리고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인간적 요소가 결핍된 남성의 지식 획득 방법을 보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식 획득 방법은 남성의 지식 획득 방법과 다르게 자신과 대상 사이의 친밀감과 평등을 촉진하게 된다.[44] 이와 같이 페미니스트 교육 이론가들은 남성의 지식 획득 방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획득의 과정에 여성적 지식 획득 방법을 포함시켜 균형있게 하려고 한다.

셋째, 성평등 교육은 여성의 감정, 느낌, 경험에 대하여 재평가를 한다. 현재의 교육 제도는 여성의 감정, 느낌, 그리고 경험을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보고 완전히 무시하였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교육 이론은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성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경험이 여성주의 교육의 근본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의 감정, 느낌, 그리고 경험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감정적인 방식으로 많은 여성들을 가르친 것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주장한다.[45] 이러한 여성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경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향을 제공하는 민감한 도구로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의 경험들은 인지 가능하고 평가 가능한 합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46] 또한 이것을 교육의 자료로 사용한다.

넷째, 성평등 교육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권력을 부여한다. 페미니스트 교육 이론에서 '권력은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에너지, 능력, 잠재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 이론은 교실 내의 "모든 권력은 소유자로 받아들이는 교사의 개념을 비판하고 교실 안에서 권력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본다.[47] 교사는 학생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학생과 더불어 누리는 권위이며, 서고 돕고 영양분을 주는 관계에 토대를 둔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유한

---

[44] Ibid., 35.
[45] Bernice Fisher, 48.
[46] Ibid., 21.
[47] Jennifer M. Gore, *The Struggle for Pedagogies: Critical and Feminist Discourses as Regimes of Truth* (NY: Routledge, 1993), 73.

목소리를 찾고 새로운 의미와 창조적 에너지로서의 권력을 발견하게 된다.[48]

다섯째, 성평등 교육은 여성의 의식 변화 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여성이 여성으로서 어떻게 억압받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억압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평등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전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을 페미니스트로 변화시켜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평등한 사회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바꾸는 일에 기여하는 일꾼으로 여성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3.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 교육의 가능성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회중들(Congrecations)이다. 이들은 다양하여 다층적인 문화와 환경 그리고 계층적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교회 구성원인 회중들을 교육하는 문제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교회 공동체의 회중들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바로 성찰해야만이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잭슨 캐롤(Jackson W. Carroll)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카말레온(Chameleon)과 같다"라고 묘사 하였다.[49] 그는 교회 공동체의 회중들은 긍정과 부정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회의 상황 변화에서 생존을 위하여 적응을 잘하는 긍정적인 면과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부름의 소명을 쉽게 놓친다는 취약적인 면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절한 회중 교육이 필요하다.

잭슨 캐롤(Jackson W. Carroll)은 교회 공동체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은 세 가지 교육적 방향과 과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50] 그것은 긍정적이고 강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을 형성하는 것이고, 회중이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Knowing It's Context)와 전략적

---

[48] Ibid., 8.

[49] 엘리스 넬슨, *Congregations: Their Power to Form and Transform 회중들: 형성하고 변형케 하는 회중의 능력*, trans. 김득렬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6) 53.

[50] Ibid., 72-77.

지식을 가지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찰적 회중 지도력(Reflective Leadership)을 지도자와 평신도가 발휘하도록 개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회중 교육의 개발 방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평등 교육의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전통교회 안에서 회중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는 그들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한다. 그런 교회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와 제도 안에서 생존을 위해 적응해 가고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가부장제 교회의 비판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회중 교육의 가능성은 가부장제 교회의 모습에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성평등 교육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은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인 회중들에게 강하고 긍정적인 성평등 정체성을 갖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것은 교회의 상황에 담긴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적 요소들과 깊이 숨겨진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지식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와 회중들은 성찰적 지도력을 가지고 그들의 성평등 공동체의 정체성과 그 상황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그 과정을 개발하고 회중들에게 명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평등을 위한 교회 공동체 교육의 전략적인 방향성 제시는 취약한 전통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백은미는 그의 책 *여성과 기독교교육* 에서 전통교회의 교육 구조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 이론을 세우도록 기독교교육의 개념을 재개념화 하였다. 그는 여성주의 기독교교육(Feminist Christian Education)을 “해방적이고 비판적인 페다고지(Pedagogy) 이론에 기초하여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모든 지식체계, 이데올로기, 교육제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여성의 온전한 인간화와 해방을 지향한다.”라고 하였다.[51] 또한 그는 “모든 여성이 인식의 주체가 되어 교육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사회를

[51] Ibid., 15.

변혁시키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52] 이러한 페미니스트 교회 교육의 재개념화는 성평등을 위한 교회 공동체 교육 과정의 구조를 세우는 기초적인 이론이 된다. 그리고 그의 이론은 구체적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하나님, 인간, 세계, 성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이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재구성함으로 성평등한 기독교교육의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그리고 마리아 해리슨(Maria Harris)은 이중적 교회 공동체의 한계적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교육적 소명(Calling)이 있다고 보았다.[53]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평생을 통하여 교육적 소명을 형성(Forming)하고, 변형(Transforming) 시키도록 부르셨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 공동체 교육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가르치도록 부르셨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였다.[54]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소명으로서의 인식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성평등 커리큘럼으로 관심을 옮기게 되고 이것은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들과 서로 같이 수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확장된 교육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전통교회 안에 담긴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적 교회 교육 가치와 구조 그리고 제도를 성찰하고 비판하여 성평등 교육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C.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 과정 이론

1. 교육 신학적 배경 이해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 신학은 전통 교육 신학의 주제들과 논쟁들에서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여성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평등을 위한 적 교육 신학 입장으로 재정립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신학은 그 동안 전통 교육 신학의 주제를 다루어 왔던 하나님 이해, 인간 이해, 세상 이해, 성서 이해, 가르침과 배움 이해를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나는 여기서 논의되는 각각의 주제들은 교육 신학의 핵심 논쟁 속에서 소외와 차별된 여성들의 경험과

[52] Ibid., 16.
[53] Ibid., 265.
[54] Ibid., 266.

목소리를 찾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성평등 교육을 위해 그 교육 신학적 실천 대안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 이해 문제이다. 복음주의 경향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여 주장하였다. 그러나 진보와 자유주의 경향에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여성이 소외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고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여성들의 부정적 자아 정체성과 신앙 성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백은미는 보았다.[55] 그 영향으로 남성과 여성의 위계질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관계적 측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부정적 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성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주의 신학자인 샐러 맥페이크(Sallie Mcfague)는 하나님의 상징과 이미지에 대한 은유적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친구, 연인이라는 은유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여성성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보살핌, 내어주는 사랑과 치유하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이다.[56] 이러한 여성주의적 대안 제시는 하나님 안의 상실된 여성성을 회복하여 긍정적인 여성의 자아 정체성과 영적 성숙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인간 이해의 문제이다. 복음주의 경향은 인간의 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진보와 자유주의 경향은 인간의 잠재성 실현을 강조한다. 이렇게 두 경향은 인간을 선과 악으로 대립하여 본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의 죄성은 그 죄를 갖도록 만드는 여성에게 있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게 한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고정관념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차별을 받게 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간의 잠재성을 강조하는 경향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발달

[55] 백은미, 26.

[56] Sallie Mcfague, *Models of Go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97-180.

이론을 수용하는데, 이 학문은 남성중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남성중심의 가치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왜곡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교육 신학자들은 페미니스트 심리학자들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분석하여 해석된, 여성의 인식 방식, 도덕 발달, 자아 발달 등의 이론을 수용하여 여성을 온전한 인간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셋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교육 장소의 문제이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관계 설정 문제는 복음주의 측과 진보 자유주의 측의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복음주의 경향은 세상과 교회를 대립적 구조로 보고, 이 세상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진보 자유주의 경향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두 경향은 자신의 현재의 경험 안에서 차별과 억압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적 시각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상징적 언어로서 '하나님의 몸'(Body of God)을 표현하였다.[57] 이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서로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창조적 과정에 서로 같이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교육 신학자들은 대안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불의와 부정 그리고 불평등의 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치유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58]

넷째, '성서의 권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성서 이해의 문제이다. 복음주의 경향은 성서의 무오, 영감설을 주장하면서 그 성서를 해석하고 적용, 암기하는 교육 방법을 강조한다. 그러나 진보 자유주의 경향은 성서를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대립적인 성서를 보는 견해에 토마스 크룸(Thomas Groome)은 새로운 성서 교육 방법으로 성서의 전통과 삶의 이야기를 변증법적으로 해석하는 공동체적 프락시스 방법을

[57] 백은미, 35.
[58] Sallie Mcfague, *The Body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80.

제시하였다.[59] 그러나 그의 방법은 성서 속에 담긴 여성들의 차별적 이이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성서의 전통이 현재의 삶의 경험과 비전보다는 권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성서가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남성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해석되었다는 전제를 가진다. 그리고 그들은 성서 속에 여성 차별에 대한 것을 여성성의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여성의 역사적 차별을 찾아내고 개선하려고 한다. 레티 러셀(Letty M, Russell)은 성서의 전통과 여성의 경험을 사이의 대립이나 분리 그리고 권위 게임으로 보는 것을 지양한다. 그는 여성의 해방적 경험과 성서의 증언들이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초대에 응답하고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였다.[60]

다섯째, '가르침과 배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학습 이해의 문제이다. 복음주의 경향에서 이것을 전수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진보 자유주의 경향에서는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이해는 1960년대에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방법(문제제기, 비판적 성찰, 삶의 변혁)을 통하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가르침과 배움에 과정에 있다는 견해를 대안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성주의 교육신학자들은 특정인의 의도와 계획 교육 내용, 즉 일방적이고 권위적으로 전수되는 가르침과 배움을 거부한다. 그들은 이 과정을 창조적이고 공동체적인 작업으로 인식한다.

이상과 같이 교육 신학의 역사 속에서 대립적 교육 신학의 흐름에 대하여 페미니스트 교육 신학자들은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을 위하여 그 교육적 배경을 새롭게 재개념화 하였다. 그것은 각각의 주제와 논쟁들에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그 실천적인 대안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 신학적인 재개념화 이론들은 구체적인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교육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

[59] Thomas H Groome,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207-223.

[60] Letty M. Russell, 146.

2.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 구조 이해

나는 여기에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교육 구조를 설계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재개념화한 교회 공동체가 성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변화되기 위하여 그것에 맞는 교육 구조로 변혁하고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교육 구조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주체, 교육 장 등의 영역에서 보편적이면서도 구체적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첫째,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의 비전(Vision), 목적(Goal), 목표(Subjective)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선 교육의 비전(Vision)은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희망적인 방향 이미지이다. 토마스 그룸(Thomas Groome)은 히브리 정신과 예수의 선포와 행위 그리고 전통적인 신학의 핵심적인 사상의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 또는 하나님의 통치(Reign of God)'라고 하였다.[61] 그리고 그것은 교육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방법을 결정하는 해석학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교육적 비전은 성평등 교회 공동체가 미래에 실현할 궁국적인 비전이기도 하다.

다음은 교육의 목적은 보편적이고 보괄적이며 장기적인 진술을 한다. 성평등 공동체 교육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비전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여성들의 비인간화와 신앙을 저해하는 교회 안의 가부장제적 위계 질서를 거부하는 의식 변화와 신앙을 위한 의식화 교육이며, 하나님의 통치에 역행하는 가부장제적 기독교 전통과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변혁을 시도하며, 성(Gender), 인종(Race), 계급(Level), 장애(Disability), 나이(Age), 종교(Religion)와 문화(Culture)로 인한 인간 차별과 주종 관계적 사회 구조적 악을 소멸하기 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실천

[61] Thomas H. Groome, 35-51.

계획이다. 그것은 의식의 변화와 신앙 성숙을 위한 여성 중심의 성서와 교리 해석 그리고 기독교 가부장제적 전통과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성서와 기독교 전통을 비판하고 재채석하는 성서 연구이다. 그리고 여성의 열등 의식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변화 시키기 위해 이야기 나누기, 여성 예배 구성하기와 가부장제 전통과 제도를 변화를 위하여 저항하였던 여성 지도자들의 사례들을 연구하고 나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인간 차별과 사회 구조적 악의 소멸을 위하여 연대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교육 실천의 과제이다.

둘째, 성평등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그 자료들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교육의 내용은 3 가지 영역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여성들의 경험과 실천들을 소개하여 그들의 야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확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인간화와 해방을 위하여 성서 본문을 여성의 경험에 기초해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여성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전통과 그 속에서 역사적으로 활동하였던 여성 지도자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설정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내러티브 방법(Narrative Method), 의식화 방법(Conscientizing Method), 예술적 방법, 성례전 의식 등이 있다.[62] 내러티브 방법은 여성의 경험을 중요한 인식의 토대로 삼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상호 비판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의식화 방법은 학습자가 사회적 현실에서 오는 자각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스스로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하는 가부장제적 교회 전통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 방법이다. 예술적 방법은 예술가와 여성들이 함께 교육에서 모든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여 아름다움과 진리를

[62] 백은미, *여성과 기독교교육*, 67-75.

표현할 수 있는 조각, 도예, 그림, 음악, 춤, 건축, 드라마, 시, 문학 작품 등으로 다양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성례전 의식은 여성들이 주로 남성들의 인도하는 기독교 전통 성례전과 예배 의식에서 자주 소외 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의하여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종교적 행위들 성례전에 반영하는 의식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교육 방법을 통하여 억압과 차별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넷째,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성평등 교육의 주체는 여성 삶의 경험과 목소리가 있는 자리에서 출발한다. 성평등 교육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전통적 힘과 권위 관계를 비판하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인식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서로의 삶과 앎을 나눈 관계성을 형성하고 양육하며 특별히 침묵 당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상호적인 관계를 지향한다. 마리아 해리슨은 교육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경의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63]

이상과 같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교육 구조 설정은 전통적인 교회 교육의 구조를 비판하고 성평등 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건축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구조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바탕을 형성할 수가 있다.

3.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 과정 이해

마리아 해리스의 예술적 커리큘럼은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의 소명과 목회 사역적 교육 구조 이해,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교육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전통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하는 코스나 교과 내용이라는 이해를 벗어난다. 그는 커리큘럼의 다양한 의미와 변화하는 교회 상황과 커리큘럼의 의미 확장으로 인해 커리큘럼에 대하여 3 가지 방향에서 이해를 하였다.[64]

[63] Marria Harris, *Teaching for Change* (New York: Berin&Garvey Publishers, 1988), 147-153.
[64] Ibid., 74.

첫째, 커리큘럼의 의미를 유동적인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그는 커리큘럼은 교회에서 이론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상호 작용을 하도록 토론하여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교회의 커리큘럼 개념은 학교 교육보다 더 넓은 것이다. 그래서 그는 커리큘럼을 경주하는 코스나 제한된 교과 내용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교회가 사역하였던 것을 재형성하는 것을 커리큘럼에 포함시켰다.

셋째, 그는 위의 두 가지에서 커리큘럼의 의미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커리큘럼이 교육, 예배, 공동체 생활, 복음 선포 그리고 섬김이라는 교회 생활에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5 가지의 교회 생활에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왕으로서의 정치 활동적인 것들이 상호 작용을 통하여 형성되어 가는 교육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마리아 해리슨은 이러한 교육의 새로운 커리큘럼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5 가지 원칙들을 제시하였다.[65] 첫째, 교회에 속한 회중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의 커리큘럼과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을 구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모든 영역 즉 가족, 스포츠, 일, 그리고 예배와 같은 사람들의 모든 활동들을 교육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교 커리큘럼과 교회 공동체 커리큘럼을 구별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 사역의 커리큘럼은 다양하다.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사용하는 교재나 텍스트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형태의 모든 사역들을 교육의 커리큘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평생 교육을 중단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의 커리큘럼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교육 내용(주제)은 다양한 층을 가지고 있다. 브라질의 교육가 파울로 프레이리(Paulo

---

[65] Ibid., 75-82.

Freire)는 모든 인간을 주체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그는 '인간이 주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의식 속에서 세상과 분리하거나 비판 그리고 맞서는 행동과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에서 또한 세상도 주체가 된다.[66] 이러한 인간의 이해는 교육의 내용이 교회 생활 뿐 만 아니라, 주체적 인간들이 회중으로 구성된 교회 교육과 커리큘럼 디자인에 포함될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커리큘럼은 제사장적이고 예언자적이며 정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교회 전통에서 물려받은 사역을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수된 사역들에 대해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기 위하여 예언자, 제사장, 왕 같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재구성된 일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커리큘럼은 다음의 3 가지 형태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즉 명시적 커리큘럼(The Explicit Curriculem), 내재적 커리큘럼(The Emplicit Curriculem), 영의 커리큘럼(The Null Curriculum) 이다. 엘이어크 아이즈너(Eillot w. Eisner)는 모든 기관들은 하나의 커리큘럼이 아니라, 세 가지의 커리큘럼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67] 명시적 커리큘럼은 의도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나타난 커리큘럼을 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내재적 커리큘럼은 명시적 커리큘럼을 짜는 형태나 조직 또는 절차를 지칭한다. 그리고 영의 커리큘럼은 역설적이다. 영의 커리큘럼은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커리큘럼이다. 이 커리큘럼은 우리의 고려와 선택에서 균형을 잃고 왜곡되거나 선택할 때 대안과 안목을 갖는 관점을 곡해할 것을 막아준다. 이 커리큘럼은(내용, 주제, 견해) 생략된 영역이나(기술, 기교, 비판적 분석 등)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절차를 포함시킨다.

이러한 마리아 해리슨의 커리큘럼 이해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교육 사역에 대한 사명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방법이다. 이러한 이해는 양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의도적인 계획을 세워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준다.

---

[66]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12-13.
[67] Eillot W. Eisner, *The Educatuional Imagination* (N.Y: Macumillan Co., 1979), 74-92.

마리아 해리슨은 어떻게 다양한 과제들을 가르치는 커리큘럼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술적 커리큘럼 설계를 제안하였다. 그는 "교회는 형태를 부여하는 교육자로서 그리고 예술가로서 광범위한 커리큘럼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말하였다.[68] 마리아 해리슨의 커리큘럼 디자인은 예술과 상상력의 작업이다. 그의 커리큘럼 계획은 예술적인 과정의 단계를 따를 것을 제안하였다.[69] 그것들은 묵상 혹은 숙고(Contemplation), 착수(Engagemnent), 형태부여(Formgiving), 출현(Emergence) 그리고 방출(Release)의 단계 등이다.

1. 묵상 혹은 숙고(Contemplation)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사람은 묵상의 단계에서 세 가지 근본적인 과제들과 마주치는데, 그것은 '사람들', '현재의 사역들', 그리고 '목적' 등이다.[70]

첫번째 과제인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보다 넓은 환경에서 다양한 층과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고려는 그들 공동체의 살아 있는 지식으로부터 커리큘럼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과제는 현재의 교회 공동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하여 묵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을 찾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묵상은 현재의 교회 사역들 속에 담긴 명시적이고, 내재적이며, 영적인 커리큘럼을 이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 과제인 '목적'은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어디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나가야 할 것을 모델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착수(Engagemnent)

이 단계는 지금까지 묵상해 왔던 내용 속에 녹아 들어가서 씨름하고, 그것에 대처하고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 착수의 단계에서 커리큘럼을 창출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지속할 것(Holding

[68] Ibid., 208.
[69] Ibid., 209.
[70] Shirley Heckman & Iris Ferren, *Creating the Cngregation's Educational Ministry* (Elgin: Breathren Press, 1976), 53-62.

On)과 버리는 것(Letting Go)을 구분하는 일이다.[71] 이것은 교회 커리큘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교회의 사역을 묵상의 과정에서 진술한 목적을 기초로 하여 버리는 것과 보존할 것을 구분하는 일을 말한다.

3. 형태부여(Formgiving)

이 과정은 그 동안 묵상의 단계에서 교회 사역의 교육 비전을 진술하고, 그것을 기초하여 보존할 사역과 버릴 사역을 구분한 후 보존할 사역들에 보다 더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속적인 재형성의 과정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정치적인 임무를 기억하며,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은 상위 커리큘럼이 만들어진 것에 보다 세부적인 하위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 때 각 분과 위원들은 보다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제안하고 만들 수 있다.

4. 출현(Emergence)

이 과정은 묵상과 착수 그리고 형태 부여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로 교회 공동체에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 동안의 커리큘럼 작업이 교회 공동체에게 드러나는 시간은 단기간이 아니라, 2 년에서 5 년까지의 계획된 기간을 통하여 만들어진다고 마리아 해리슨은 말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그 동안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인정하고 긍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5. 방출(Release)

이 과정은 그 동안 형성해온 커리큘럼의 마지막 단계로서 포괄적인 공동체의 삶 속에 풀어주는 자유롭게 내버려두기이다. 방출은 그 동안 묵상, 착수, 형태부여, 그리고 출현에 의해 양육되고 교육되었다. 이 단계는 성령을 신뢰하는 단계로서 그 동안의 커리큘럼의 과정을 버리고, 그

[71] Marria Harris*, Fasion Me A People*, 214.

분께 맡기고 흘러가도록 내려 놓는 작업이다. 이것이 그동안 수고하며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놓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재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리아 해리스는 이와 같은 예술적인 작업으로서 커리큘럼의 설계 과정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적 사역, 즉 교육 목회의 재형성 과정을 제시하였다.

나는 2 장에서 성평등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페미니스트 신학적 관점에서 가부장제적 교회를 해체하고 페미니스트들이 지향하는 여성교회 모델과 같은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 재개념화는 작업을 하였다.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의 형성은 회중 교육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은 생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일깨워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중 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리더십 개발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나는 회중 교육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교회 교육 구조와 커리큘럼을 재설정한다. 특히 나는 마리아 해리슨의 커리큘럼 이론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교회 교육 과정을 재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는 이 커리큘럼의 이론을 기초하여 회중이 함께 참여하고, 예술적인 성평등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전략을 세워 보고자 한다.

Chapter III
교육 교재 분석과 진단; 피택 항존직 교육 교재 '충성된 일꾼'
(Diagnosis and Analysis; Pitaek Hangjonjik Training Materials)

A. 교육 교재 이해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교육자원부의 항존직 교육자원부에서 출판한 '충성된 일꾼'을 교회 안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의 실태를 진단하는 자료로 선택하였다.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의 대부분의 교회들과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항존직 교육을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교재이기 때문이다. 이 교재는 차세대 한국 교회 지도자들(장로, 권사, 안수집사)이 교회 현장에서 받고 있는 양성평등 교육의 실태를 알아 볼 수 있다. 또한 이 교재는 특정 교단 교육부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교단과 교회들의 성평등 교육에 대한 성인지도를 알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는 이 교재를 교회의 양성평등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료로 선택하였다.

1. 교육 교재의 개발 배경

피택된 항존직 교육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이라는 교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자원부가 수년간의 집필과 편집을 통하여 2000년 발간하여 2013년까지 15판을 출판하였다. 이러한 많은 출판은 교단 산하 교회들이 총회 때마다 지역 교회들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 이러한 필요와 요청은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선출한 항존직 지도자들이 교회의 분위기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교재가 개발되도록 하였다.[72]

이 교재는 교단 산하의 교회들이 피택한 항존직 중 장로는 6 개월 이상, 권사와 안수집사는 3 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로 교육을 받은 후 임직하도록 되어 있는 교단의 정책에 맞도록 만들어진 교재이다. 그러므로 이 교재는 교단 산하의 교회의 피택된 항존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

[7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충성된 일꾼들: 피택항존직 교육 교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2013), 7.

요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 교재의 구성과 내용

이 교재는 전체 6 단원 22과로 되어 있고, 각 단원은 2 - 5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원은 성서론으로서 구약과 신약 성경의 개론을 공부하고 성서의 권위를 강조한다. 특히 구약에서는 피택된 항존직의 성서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하고, 신약에서는 항존직의 삶에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단원은 직분론으로서 항존직인 장로, 집사, 권사의 자아 정체성과 자기 직분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단원의 각과는 항존직, 청지기, 지도력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청지적인 삶과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단원은 신앙 고백론으로서 각과에서는 사도신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12신조와 요리문답을 배워 성경해석의 기준과 이단의 공격을 방어하는 지식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었다. 넷째 단원은 교회론으로서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서 바른 교회론과 역할을 위해 교회의 본질과 사명, 교회와 국가, 교회와 문화, 교회와 행정 등으로 단원을 만들었다. 다섯째 단원은 교회의 기능에서 항존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배우는 역할론이다. 이 단원에서는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행2: 32, 42, 44-47절)에서 수행한 교회의 기능 중에서 예배, 교육, 전도와 선교, 친교, 봉사가 상호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직분자들이 교회의 목회(Ministry)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섯째 단원은 신앙생활론으로서 항존직으로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단원은 항존직의 청지기 생활, 직분자와 신앙생활, 직분자와 사회생활, 직분자와 직업, 직분자와 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교육 교재의 학습 방법

이 교재의 학습 진행과정은 먼저 각 과의 학습 내용과 관련된 찬송을 시작 전에 부르고 찬송이

끝나면, 오늘의 말씀은 학습자가 개인 혹은 교독으로 봉독한다.[73] 기도는 목사의 지도하에 객관적인 기도문을 작성하여 3 분 이내에 대표가 기도 하도록 하는 훈련을 같이한다. 그 후에 학습할 목표를 다 같이 읽고 3 단계 학습 즉 말씀 보기, 강의 듣기, 말씀 청종 등으로 진행하고 마칠 때 찬송으로 마무리 된다.

이 교재의 3 단계 학습 진행 중 말씀 보기 과정은 말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주어진 3 문제를 읽고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로 발표한다. 다음은 강의 듣기 과정으로 강의는 담임 목사가 교회의 상황과 문화적 정황에 따라서 주어진 과의 주제에 따라 강의하는데, 그 강의의 초점은 충성된 일꾼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74] 마지막으로 말씀 청종의 과정은 앎을 통하여 지식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행동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도록 실천적인 과제를 준다. 이러한 학습 진행 과정은 60분 정도의 시간으로 마치고, 이후 다과와 음료로 서로 교제하도록 한다.

B. 교육 교재의 분석 틀; 성평등 교육의 관점

나는 교회 항존직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이 교재를 어떻게 분석하고 진단해야 할 것인가? 또 보이는 교육 교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교육 교재 분석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나는 이 교육 교재를 성평등 교육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하고 진단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은 교회의 모든 사역과 교육에 있어서 양성의 자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와 조건 그리고 결과까지 평등하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적 관점에서 먼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으로서 양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 여성들도 교회 안에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힘과 권력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민주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73] Ibid., 8.
[74] Ibid.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교육에서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생산하거나 재생산하는지를 비판적인 안목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교육이 교회 교육 커리큘럼 안에 남성처럼 여성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여성의 느낌과 감정 그리고 느낌을 재평가하고, 교육의 인식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필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의 성차별과 불평등에 비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교육 커리큘럼 설계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과 그들의 인식 방법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지 등을 살펴 볼 것이다.

1.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힘과 권력의 문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교회의 권력과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를 파악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를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 백성들의 모임의 특성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공동체는 모두가 주체이며, 평등하고 힘과 권력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힘과 권력을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운동 당시에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남성과 동등하였고, 성령에 의해 시작된 교회의 속성도 성적 평등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평등 교육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남자와 여성이 동등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위치와 역할이 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여기서 나는 전체적으로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 교육 교재가 제작되고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 교육 교재 내용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어느 정도 상호 균형적으로 담겨 있는가? 둘째, 이 교육 교재는 남성의 위치 및 역할과 동등하게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장해 주고 있는가? 셋째, 이 교육 교재는 교회와 여성과의 민주적 관계로서 독립을 위한 힘의 부여, 지지와 후원의 멘토, 남성과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등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재 제작과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교재를 분석할 것이다.

2. 교육 교재 안의 남성 언어, 제도와 구조, 여성 이미지 등의 성차별

여기에서는 교육 교재 안에서 어떤 성차별과 성불평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 나는 언어, 교육 제도와 구조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 등을 교재 안에서 살펴 볼 것이다.

첫째, 이 교육 교재 안에 어떻게 남성의 언어가 서술되었는가? 그리고 그 교재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그것은 남성의 언어를 통하여 저자의 내면에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치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둘째, 이 교육 교재의 교육 과정 중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와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나는 여성을 차별하는 교실의 환경이나 학습 관계 등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한다.

셋째, 이 교재 안에서 사용된 교육 자료 중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교재의 내용 중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 사용이 어느 정도 평등하게 삽입되었는지를 알아 볼 것이다.

3. 학습 과정에서의 교육 주체와 여성들의 인식 방법 그리고 민주적 관계

나는 이 과정의 분석에서 여성이 주체로 인정을 받고, 그것에 알맞는 역할과 위치를 갖도록 커리큘럼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하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나는 남성중심의 이성적인 교육방법만이 아니라, 여성의 인식 방법인 그들의 경험, 느낌, 감정 등을 재평가해서 인정하여 교육의 방법이 어떻게 포함되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이 교재의 교육 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첫째, 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육 과정에서 학습의 주체가 누구이며, 여성도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교회 공동체의 회중은 다층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양성평등 교육에서 모두 주체로서 역할과 위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여성도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 정책의 설정과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 위원회 활동 등에 활당제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

둘째, 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육 과정에서 학습에 참여자들은 여성의 인식 방법을 어떻게 재평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지금까지는 남성중심의 교육 방법은 이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고 우열을 정하였다. 그러나 성평등 교육에서는 이성 중심의 교육과 함께 여성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느낌을 통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재평가하고 동등하게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교재는 여성이 보다 잘 이해 할 수 있는 여성 인식 방법들을 재평가하고 수용하여 교육 자료 교재에 담아야 한다.

셋째, 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실의 학습 현장에서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성평등 교육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기 위해서 교육의 현장에서 학습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민주적 관계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실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교육 진행 과정에서 여성이 스스로 힘을 갖도록 힘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멘토 형성 그리고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교육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상과 같이 나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서의 힘과 권력의 문제, 교재 안에서 성차별과 불평등의 생산 문제(언어, 제도와 구조, 여성 이미지)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의 여성의 주체성과 민주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 교재를 분석하고 진단할 것이다.

C. 교육 교재의 내용 분석; 성평등 교육의 관점

1.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힘과 권력의 문제

여기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의 위치와 역할의 문제, 교재 내용 안에서 여성과 남성이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민주적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첫째, 이 교육 교재는 남성의 위치 및 역할과 동등하게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인정하고, 어떻게 보장해 주고 있는가? 이 교재의 집필 위원으로는 각 노회의 23명의 남자 목사와 커리큘럼 담당자로서 교육자원부 소속의 남자 목사 5명, 그리고 교육자원부 총무 1명의 남자 목사 중심으로 저술되고 편집되었다.[75] 이 교재의 저술 과정에서 여성 교육 전문가 등이 활당제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 교재를 학습하는 대상자는 여성 장로와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성 집필가와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없다는 사실을 양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이 교육 교재 내용이 어느 정도 성적 차별 없이 동등한 인간됨(Humanhood)를 담고 있는가? 이 교재의 내용은 성서론, 직분론, 신앙고백론, 역할론, 신앙생활론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구성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남성들의 주제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 이러한 내용 구성의 남성적 이미지가 강조되고, 여성성을 담을 수 있는 주제 선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는 22과 직분자와 가정이라는 것인데, 이것도 교재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놓였고, 그 내용이 여성과의 경험과 관련성도 없다.[76] 왜냐하면 그것을 집필한 저자도 남성 목회자이고, 그 내용도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인 가정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서술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히 22과의 말씀 청종에서 저자는 '배우자에 대해서 가장 실망했던 적은 언제인가?

---

[75] Ibid., 4-9.
[76] Ibid., 185-192.

그리고 그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라고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여성성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질문에 많은 여성 학습자는 경험과 느낌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민주적 학습 관계의 형성이 전제되지 않고, 대화를 깊이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이 교육 교재는 교회와 여성과의 민주적 관계로서 독립을 위해 힘을 부여하고, 지지와 후원의 멘토, 남성과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등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 교재의 집필진과 참여 교육전문가들은 모두 남성들이다. 그리고 각 교회에서 학습을 진행하는 사람도 담임목사로서 대부분이 남성들이다. 그리고 장로교 교단은 제도와 법적으로 성평등적 조치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각 교회에서도 여성 장로와 여성 권사 그리고 여성 안수 집사들이 소수이지만 피택되어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에게 교회의 힘과 권력이 주어져 있는 위계적 교회 제도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그룹에서 민주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정치 제도와 구조에서는 민주적 관계의 힘과 권력이 형성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의 구성은 학습자에게 ‘말씀 청종’ 과정을 통해 3-4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지만, 관계 형성의 한계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교회 상황이다.

이상에서 이 교재의 제작 과정에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힘과 권력이 양성에게 평등하게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교재의 집필자들이 모두 남성이라는 점과 교재의 구성 내용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여성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경험을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대화를 위한 민주적 관계 형성이 형성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질문이다. 나는 이 교재의 구조와 내용 속에서 힘과 권력이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재가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육 교재 내용 안의 남성 언어, 제도와 구조, 여성 이미지 등의 성차별

나는 이 교재 내용 안에 어떻게 남성중심의 언어 사용과 여성 차별적 제도와 구조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교육 교재는 어떻게 남성의 언어로 서술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교재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이 교재는 전체적으로 29명의 집필진이 모두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언어가 중심으로 서술 되었다. 2장 직분론 중 4과 청지기직에서 청지기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예로서 교재에서 '아브라함 집의 노종, 다윗 시대의 청지기 소집, 느부가넷살 왕 시대의 청지기들이 왕자를 교육한다'고 저술하였고, 예수의 비유에서 청지기도 언급되었다.[77] 그런데 이러한 청지기의 공통적 이미지는 노인이고, 남자이며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종으로 표현하는 남성 이미지이다. 또한 4장 교회론 중 10과 교회와 국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왕의 꿈에 나오는 남성 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제시하였다.[78]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남성 왕이 힘과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남성의 나라로만 연상을 하게 한다.

그러나 5장 역할론 중 14과 교육을 위한 교회의 역할과 책임에서 항존직인 가정에서 육적 및 영적 부모로서 자녀에게 대하여 어떤 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질문을 하고 있다.[79] 이러한 질문은 남성과 여성이 부모로서 어떻게 성역할을 분담하는지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인 이야기 언어만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저자가 남성이고, 그는 보다 구체적인 여성의 언어로 질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남성언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서술되고 편집된 성서를 페미니스트 신학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교재에 사용할 때는 대부분 남성중심의 언어로 여성을 억압하는 기재로 사용될 수

---

[77] Ibid., 41.
[78] Ibid., 89.
[79] Ibid., 124.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남성중심의 언어 속에는 여성 차별하는 숨겨진 의식이 담겨 있다고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이 교육 교재의 내용 중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와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2장 직분론 중 3과 항존직에서 장로교 헌법의 규정으로 항존직인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조건과 역할을 언급하고 있다.[80] 이 규정에는 여성을 제한하다는 규정은 없으나, 지금까지 여성이 차별받고 장로와 안수집사의 선출에서 늘 소외되어 왔다. 이 직책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성차별적이고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의식이 남아 있는 교회에서 법적으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 여성 장로와 안수집사를 남성 장로를 선출할 때 활당제로 선출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해야 할 것이다.

4장 교회론 중 12과 교회와 교회 행정에서 교회 행정의 담당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의 역할을 서로 분리하여 저자는 서술하였다.[81] 그러나 권사의 역할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이 없고, 교회의 목사의 심방을 돕는 역할로 저자는 종속시켰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소외와 차별적 의식으로 인하여 여성 권사들은 동등한 항존직이면서도 교회의 위계적 제도와 구조에서 차별을 받도록 하였다.

5장 역할론에서는 교회의 5 가지 기능과 항존직의 역할을 가르치고 있다.[82] 그런데 이러한 항존직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교회의 각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남녀 구성과 책임자의 자리에 누가 어떻게 앉을 것인가?' 라는 실제적인 운영의 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가르침이 없다. 실제로 교회의 제도와 구조의 운영에 있어서 여성 항존직들은 책임자의 자리보다는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남성을 통하여 가려지고 숨겨지는 성차별 중 하나의 예인 것이다.

---

[80] Ibid., 24-37.
[81] Ibid., 104.
[82] Ibid., 143-146.

셋째, 이 교재에서 사용된 교육 자료 중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은 없는가? 그리고 교재의 내용 중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 사용이 어느 정도 평등하게 사용되었는가? 1장 성서론 중 1과 구약에서의 장로 역할 수행을 모델로서 아론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다.[83] 오늘날 장로교 헌법에서 장로는 여성과 남성일 수 있는데, 장로 모델의 예를 남성 장로 이미지가 강한 아론만을 저자는 제시하였다. 만일 남성 장로 이미지로 아론을 제시하였다면, 동등하게 여성 지도자 모델로 드보라 등의 여성 이미지를 동등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장로 이미지에 대한 제시가 없다면, 여성 장로의 역할 모델로 남성 장로의 남성성을 요구하고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여성 장로를 선출하는 것은 남성 장로의 역할만이 아니라, 양성의 장로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2장 직분론 중 5과 지도력에서 저자는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 5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과 융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의견을 존중하는 것, 리더십을 분산하는 것, 열정과 의욕을 가진 것 등 이다.[84] 이러한 리더십의 제시는 일반적으로 남성중심적인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여성적인 특징을 담을 수 있는 리더십을 동시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성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의 제시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 학습의 과정에 여성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4장 교회론 중 12과 교회와 교회 행정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공관복음에 어떤 순서로 기록되었는지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85]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남성이며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도 위치와 자리를 보장해 준다는 이미지와 함께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러한 남성 12 제자를 제시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초기 예수 운동 당시 12 명의 남성 제자들보다 더 탁월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여성 지도자의

[83] Ibid., 16-17.
[84] Ibid., 49.
[85] Ibid., 106-108.

모델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여성 제자의 이미지는 여성의 동등한 위치와 역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교재는 남성중심의 언어와 여성 차별적인 제도와 구조를 비판 없이 성서에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하었다. 또한 여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이미지를 편중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학습 과정에서의 교육 주체와 여성들의 인식 방법 그리고 성주류화 문제

나는 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학습의 주체이고, 그들의 인식 방법이 재평가 받아 남성의 인식 방법과 동등하게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 설계에서 여성의 문제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교육 설계 과정에서 주요 이슈로서 고려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육 과정에서 학습의 주체가 누구이며, 여성도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교재의 개발 단계의 집필진에 여성 교육전문가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여성 지도자들을 학습 과정에 주체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표현하도록 대화의 환경과 기술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분명히 교회의 법규정에 여성은 장로와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의 선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교회의 기능을 돕는 각 위원회에서 책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의 위치와 자리는 늘 남성들에 의해서 가려졌으며, 보이지 않는 억압과 차별이 있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교재의 편집 과정에서 여성의 관심사가 교재의 구성에 포함되고, 그들의 감정과 정서를 담긴 교재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커리큘럼 설계 과정에서는 여성 교육 전문가와 책임자들이 할당제로 참여하여 그들의 주체성과 경험이 담긴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이 교재를 사용하는 교육 과정 중 학습 참여자들은 여성의 인식 방법을 어떻게

재평가하고 커리큘럼에 수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재의 학습자인 여성 항존직의 인식 방법인 그들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감정이 학습 자료로 선정되어 사용되고 있는가? 이 교재의 일러두기의 '교재의 진행'을 보면, 말씀 보기와 강의 듣기 그리고 말씀 청종의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86] 이 부분에서 교재화 작업을 진행한 편집자들은 말씀 청종 과정에서 3-4개의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앎이 삶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대화의 환경이 민주적이고 활발하기 위해서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고,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촉진될 수가 있다. 특히 삶을 나누고 상호 변화을 위해서 여성의 경험과 느낌 그리고 감정을 재평가하여 수용하고 그것을 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 이야기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가 있다. 또한 그 중에는 초대 예수 운동 때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탁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교회의 축복의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사역의 주변이 아니라, 주체로서 여성의 문제를 교육 과정에 주류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교재는 이러한 여성주류화의 문제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교재는 남성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의도적, 계획적, 지속적인 커리큘럼 설계가 잘 작성되었다. 그러나 여성의 참여와 여성적 관점에서 이 교재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 현장에서 여성 항존직의 위치와 역할이 남성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이 교재를 분석하면서 교회 60-70% 가 여성이며, 교단의 여성 조직인 여전도회가 있으면서도, 양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차세대 지도자 양성 과정에서 주변인으로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86] Ibid., 8-9.

D. 교육 교재 분석 결과와 진단

나는 한국장로교의 대표 교단에서 발간한 선출된 남녀 교회 지도자 교육 교재(충성된 일꾼)을 성평등 교회 공동체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나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들을 교회 공동체의 힘과 권력의 문제, 교육 내용에서의 언어, 제도와 구조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 등에 성차별과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교육 과정 설계에 있어서 여성의 주체성과 인식 방법과 성주류화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교육 교재 분석 결과

a.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힘과 권력의 문제

먼저 이 교재 안에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위치과 역할을 교재 저술의 과정에서 행사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집필자들은 교단 소속의 노회 대표들로 전문성이 부족한 남자 목사들이 주도적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교재를 설계한 교단 교육자원부 교육전문가들도 모두 남자 목사들이기 때문에 여성이 교재의 저술과 교재의 양성평등적 위치와 역할은 이 교재 안에 포함되어 있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이 교재의 내용 안에 여성성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를 보기 위해 교재의 구성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내용 안에는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남성적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각 과의 질문 내용 중 미비하게 여성들의 경험을 질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교재 안에는 남성성을 강조하는 내용 중심으로 채워져 있었고, 여성성과 균형을 맞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교재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 안에 여성과 민주적 관계 형성의 흔적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이 교재의 집필진이 모두 남자이면서 소속 교단의 위치와 역할에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고, 교단의 교육 정책과 자료를 개발하는 교육자원부의 담당자 5 명도 모두 남자들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회의 이 과정을 교수하는 사람들도 교회를 지도하는 남성 목사들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교회에서 선출된 지도자로서 남자와 여자이며, 각각 제한적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이 교재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고려하여 출판된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교재 안에서는 권력과 힘을 여성과 남성이 나누고, 민주적 관계에서 교회의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담겨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b. 교과 내용 안에 언어, 제도와 구조, 그리고 여성 이미지의 문제

여기에서는 교육 교재 안에 여성 차별과 성불평등을 교육하여 새로운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를 재생산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먼저 이 교재 안에는 여성의 소리보다는 남성중심의 언어로 저술되었다. 이 교재의 집필자들은 주제를 설명하면서 성서의 남성중심의 언어들을 여과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예들이 많이 보여졌다. 또한 교재 5장 14과에서는 가정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는 듯한 서술로 인하여 성 고정관념이 성서적 가치관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문제도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이 교재 안에 교회론과 직제론 등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규정은 없지만, 여성을 제도와 구조적으로 차별하였던 한국 교회 전통을 해결하려는 어떤 적극적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학습자를 학습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과 토의 과정을 만들었지만 그 질문의 대부분이 남성의 경험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교재 내용 안에는 남성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여성의 이미지를 소외시키는 형상이 두드러졌다. 모든 주제와 그 설명 그리고 성경적 예시에 있어서 여성 이미지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남성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내용보다 더 많이 있었다. 특히 여성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남성 장로인 아론의 이미지를 부각하거나 교회의 장로와 안수집사는 구체적인 교회 전체적으로 전문화된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여성 권사들은 담임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스스로 책임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았다는 제한적인 이미지를 제공 받았다.

나는 이 교재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보이지 않게 여성들을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성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교회 전통을 재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c. 교육 과정 설계에 있어 여성의 주체성과 인식 방법과 성주류화의 문제

우선 이 교재는 교육 과정의 설계 단계에 다양한 계층의 평신도 회중이 참여하지 않고, 교회의 남성 성직자 그룹에 의해서 편향적으로 제작되었다. 여성이 한 명도 교재의 집필 과정에 참가하지 않아서 남성 주도적인 교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이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여성들이 참여하여 학습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식 방법을 고려한 학습 과정으로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여성들이 어떻게 학습의 내용을 인식하는지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과 다른 인식 방법은 여성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그 교재를 여성들에게 평가하도록 할 때 그러한 인식 방법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것이다.

마지막은 여성이 교재 커리큘럼 설계 과정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집필되었기 때문에 성주류화에서 벗어난 교재 집필이었다. 그리고 여성들의 문제를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각과의 말씀 청종이라는 부분의 질문에서 일부 관련을 지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것은 처음부터 여성을 배려하고 고려한 집필이 아니고, 여성의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첨부하는 방식의 접근을 하였다. 이러한 교재 편성은 성평등 교회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분석 결과의 진단**

나는 내가 속한 교단의 차세대 교회 지도자들의 위한 교재가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상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 교재를 분석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 정체성의 문제, 교재의 성차별성과

가부장제 교회 강화의 문제 그리고 여성을 이중적으로 차별하는 커리큘럼의 개발 과정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통과 관례라는 생각에 보다 더 성차별적이고 보이지 않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제도와 구조 그리고 문화를 교회가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고정관념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이제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모든 교육에 있어서 힘과 권력의 분배와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의 정책과 계획 그리고 위원들을 세워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체의 힘과 권력이 남자와 여자들에게 균형 잡혀 나누어지고, 민주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성평등 교회 공동체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평등 교육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교재 안에 남성의 지식 획득 방법만이 아니라 여성의 지식 획득 방법을 고려한 교재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재 편성을 위해 우리는 모든 교재에 성평등의 내용을 지속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삽입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해야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교회의 사고가 점차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든 교회의 교육 과정의 설계에 여성의 학습 방법을 고려하고, 그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학습 환경과 대화 기술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여성 교사들을 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교육의 정책과 설계에 참여하고 그들의 경험과 감성 그리고 느낌에서 평가하고 재설계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학습의 대상은 남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하지만 다른 인식 방법을 가진 여성 학습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3. 대안 제시;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나는 이 교재를 분석 및 진단하면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제자직 커리큘럼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의 제자로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등하게 사역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비판하고, 성차별과 불평등을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페미니즘 교육 방법을 교회가 수용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성평등 교육이 교회 안에서 실행되기 위해서 나는 교회 사역의 다양성과 여러 계층의 회중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커리큘럼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 지금 목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목회 커리큘럼을 설계하고자 한다.

Chapter IV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
(The Curriculum Design Model to Form for an Equal Community Church)

A.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성종현은 예수의 사역 30년의 비전이 하나님의 실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7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87] 그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은 '도래한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역전과 파라독스의 나라,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의와 평화의 나라, 평등의 나라, 사랑과 섬김의 나라, 빛과 생명의 나라, 도래한 종말론적 새로운 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라고 요약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성 교수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 제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교육 목회 주제로 삼고, 준비하여 가르치려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지금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비전과 도전을 제공하여 준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7 가지 특징 외에도 김명용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라는 글에서 21세기 교회의 핵심적인 목표를 주장하였다.[88] 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정의하며[89], 이러한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90] 그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 현재 성장하고 있다고 하였다.[91] 또한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

[87] 성종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비전," *장신논단* 30 (December, 2007): 79-109.

[88] 김명용,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장신논단* 7 (December, 1991): 156-178.

[89] Ibid., 159.

[90] Ibid.

[91] Ibid.

위하여 교회의 과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92] 그 중에 첫째는 교회의 영적인 활동으로 계시 기관의 기능, 전도 기관의 기능, 영적 일꾼 양성의 기능, 예배하는 기관의 기능, 성도과 사귐 기관의 기능, 기도하는 기관의 기능 등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영적 기능만을 자신의 과제로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교회의 세상적인 과제로서 가난한 이웃, 정의, 평화, 창조 세계 수립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선한 이웃과의 협력, 교회의 정치적 책임과 선의 창출 등을 제시하였다.[93] 그의 이러한 주장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목표로 할 때, 단지 영적인 과제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말고, 사회적인 과제 수행에도 힘을 쏟아 균형잡힌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영적이고 사회적 과제 수행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한 책임에 순종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실현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기능 뿐 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다.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향한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에 속한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다.

B.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교육 방향

나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은 다음 3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중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기초하여 교회 공동체가 성적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동등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 교육 방법에 페미니스트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의 현장에서 비판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그 동안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교육을 비판하고 평등한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

[92] Ibid., 161

[93] Ibid., 163-177.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성인지 의식과 제도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는 동등한 여성 제자들을 개발하고 성평등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양성하는 것이다.

1.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형성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회의 모델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교회 모델로서의 '여성교회'이다. 이러한 여성교회는 여성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성평등한 교회 모델로서 모든 교회가 변화해 가야 하는 실천적 교회이다.

박순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여성교회* 라는 글에서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예비하기 위한 대안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로서 '여성교회'를 제시하였다.[94] 그러한 교회는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어린이가 서로 사랑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도래를 기다리면서 세계의 문제를 밝혀내고 함께 행동하는 공동체라고 하였다.[95] 그는 이러한 이상적인 교회는 각계층의 남녀노소가 어우러져 있는 '여성교회'라고 주장하였다.[96] 이러한 여성교회의 목표는 남녀 평등의 새로운 교회 구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주권에 대한 세계와 역사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회는 교회의 탄생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탄생하였고, 그 성령에 힘입어 새 사람의 탄생을 매개하는 성모 마리아의 역할에 상응하는 직분을 가지고 새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는 예언자 여성의 사역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97] 성령은 새 사람 탄생의 어머니요, 새 나라의 도래를 예비 시키시는 하나님 어머니이시다. 그리고 전통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어머니의 공동체인 것이다. 교회의 어머니됨은 남성과 여성을 포함해서

---

[94] 박순경, "하나님의 나라와 여성교회," *기독교사상* 37 (January, 1993): 183-210.
[95] Ibid., 193.
[96] Ibid.
[97] Ibid., 196.

인간성 전체를 대표하는 '여성 인간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머니 공동체는 궁극적인 종말이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며 형상이다. 이와 같은 여성교회의 예언자 여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해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전통교회의 좋은 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여성교회의 예언자적 여성이해의 관점은 21 세기 오늘날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교회 전통에 새로운 변혁과, 성차별 속에 있는 교회의 여성들을 성평등 의식을 가진 동등한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좋은 도전이 되며,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될 것이다.

2. 페미니스트 기독교교육 실현

나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회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성평등 학교의 방향을 위한 선행 연구들에서 도움을 얻고자 한다.

조경원은 그의 글 *젠더와 교육* 에서 성평등을 위한 학교 교육 방향은 다음 세대의 사고와 의식의 변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98] 그는 성차별의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성평등 학교 교육의 방향을 4 가지로 제시하였다.[99] 이 방향 제시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그는 학교 교육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교육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분업과 성역할 의식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성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학습자 중심의 비판적 안목과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

[98] 조경원, "젠더와 교육," *여성연구논집* 17 (April, 2006): 29.
[99] Ibid., 47-55.

의미하는 것인지를 남녀 학습자가 상호 이해하고 새로운 남녀 인간상을 획득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셋째, 학교는 초, 중등 여학생을 위한 다양한 진로 지도와 여대생을 위한 직업 준비 교육을 지원하는 체체를 제공해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여성들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리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성평등 교육을 위하여 교육 방법에 있어 젠더에 민감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마틴(Martin)의 주장처럼 여성이 이중적인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남성과 다른 경험 때문에 학습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다른 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교육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00]

또한 그는 성차별의 문제가 단순히 교육 기회, 목적, 내용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적이고 사적인 영역에서 뿌리깊게 박힌 성분업, 성역할 의식, 성차별 의식, 사회 구조와 깊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의 변화보다는 바른 방향의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101] 이러한 학교 교육에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이외에도 한국 교회 안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를 제시한 선행연구도 있다.[102]

또한 임희숙은 그의 연구 논문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3 가지 과제를 성 정체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극복, 경제 교육으로 제시하였다.[103]

---

[100] Ibid., 55.

[101] 조경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17 (January, 1999): 3-17.

[102] 임희숙, 267-287.

[103] Ibid., 277-285.

첫째, 성 정체성 교육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바른 자존감과 양성의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정체성의 교육은 신구약에 나오는 인간을 성적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극복을 과제로 삼는다. 성역할은 특정 문화에서 성별에 따라 적절한 것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대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역할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두면서도 사회학적 기대를 반영한다. 성역할은 고정된 것일 수 없지만, 이를 고정된 것으로 봄으로써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성 역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 방법으로 임 교수는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질서와 신학을 비판, 고정된 성역할을 가르치는 교육 이념, 교육 과정, 교육 활동, 교육 자료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고자 교단의 모든 교육 분야에 여성 할당제 참여 등을 제시하였다.[104]

셋째,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경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에 기초한 여성 경제 활동의 억압과 차별은 가난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양성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와 교단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 제시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성평등의 요구와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평등을 위한 학교 교육의 실제와 교회 안에서 성평등을 위한 과제 사이에 상호 연관성을 두고 성평등 교회 공동체 교육 목회의 방향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시대적인 성평등 교육적 흐름과 또한 독특한 환경 속에

[104] Ibid., 280-282.

있는 교회 공동체 사이의 여러가지 차이를 고려한 성평등 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성평등 교육 목회의 방향을 세우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세상적 과제로서 양성평등을 삼고, 교회의 영적 과제와 세상적 과제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위한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성평등의 교육 목회의 실천적 영역은 개인적인 차원과 세상적인 차원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평등 교회 공동체는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새로운 인간상을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재발견하고, 예언자적인 여성 제자로서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성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로서 성에 민간한 교육 방법을 수용하여 성정체성, 성역할의 고정 의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하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교회 공동체의 성평등 교육 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역사적 차원에서 교회 공동체는 이 역사 속에서 뿌리 깊은 숨겨진 성차별의 구조를 악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의 과제로서 선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함께 극복하는데 책임적인 역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성평등 여성 제자 개발과 동등한 사역자 양성

하나님의 나라 실현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여성교회와 예언자적인 여성 지도자 모델을 신약성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신약성서 중 권위 있는 복음서에서는 그 사역이 제한적이고 비중도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5] 그러나 정기문은 그의 논문 “두 마리아에 대한 묘사를 통해 본 복음서의 여성관”이라는 글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105] 송혜경, “신약 외경에 나타난 마리아 막달레나,” *Catholic Theology and Theough* 70 (December, 2012): 58.

같이 밝히고 있다.[106] 페미니즘 시각의 연구에 의하면, 예수와 바울은 기존에 생각해왔던 것보다 여성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자로 삼았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그러나 1 세기 후반 이후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1 세기 후반의 산물이 복음서에서는 성차별의 흔적을 담고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누가 복음에서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가장 강하게 관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복음서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위상의 축소가 초기 예수 운동에서 서로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송혜경은 그의 신약 외경 연구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107] 이러한 입장은 여성교회와 예언자적 여성을 주장하는 피오렌자를 비롯한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그는 신약의 외경인 토마복음, 빌립보 복음, 마리아 복음, 구세주와의 대화, 피스티스 소피아 등에서 1 세기보다 앞서는 초기 예수 운동 때와, 그 전통의 일부를 이어 받고 있는 영지주의 계통에서는 여성들의 위치나 활동이 남자 제자들에게 가려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108] 도리어 신약성서의 외경에서 여성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통찰력의 소유자로 소개된다. 특히 피스티소피아, 마리아 복음에서는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통찰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묘사된다고 한다.[109] 그러면서 신약 외경에서 제시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과 역할은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 해석가, 주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은 인물로서 다른 제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임무를 맡았다고 한다.[110] 그러나 이러한 여성 제자들의 위상과

---

[106] 정기문, “두 마리아에 대한 묘사를 통해본 복음서들의 여성관,” *서양고대사연구* 37 (April, 2014): 125.

[107] 송혜경, 47-93.

[108] Ibid., 74.

[109] Ibid.

[110] Ibid., 74-76.

역할은 1 세기 교회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교회 구조를 형성하면서 역사 속의 교회 전통에서 가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교회 전통에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구조가 교회의 전통이라는 권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서의 강한 주장은 성평등적인 교회의 개혁에 커다란 저항 요소가 되고 있다.

그의 연구 논문 보다 적극적으로 성평등 사역의 성서적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글이 바로 이순임의 글이다. 그의 *마가복음에 나타난 여성 제자직* 이라는 글은 여성 제자들이 남성 제자들보다 더 탁월한 사역을 이끌어 주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111] 그는 마가복음이 보여 주고 있는 예수의 제자직의 모범을 4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선포와 치유, 자기부인 및 십자가, 식탁 교재와 섬김, 함께 있음 등이다.

이러한 제자직의 예수의 4 가지 모범을 여성 제자들은 어떻게 수행하였는지를 그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112] 첫째, 여성 제자들은 예수의 사역 과정과 그의 죽음과 장사까지 함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남성 제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성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결정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확인(막 16 장 1-8 절)하고 예수의 증언자로서 가정 먼저 부름을 받았다. 또한 예수 부활의 담지자로서 여성들은 이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명령을 받는다.[113] 둘째, 마가복음의 식탁 교제는 현상적으로 남성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였지만, 은유와 상징을 통하여 식탁 교제의 사명은 여성에게로 옮겨갔다. 마가복음 6-7 장의 먹이심의 기적을 기점으로 새로운 구조물이 형성되는 예수님과 수로보니게의 여성의 샌드위치 구조의 논쟁이다. 이 논쟁은 결국 예수의 선교적 신학의 지평을 이방인에게까지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먹을 것을 이방 여성에게까지 열어주는 계기가 된 것이다(막 7:24-30).

---

[111] 이순임, “마가복음에 나타난 여성 제자직,” *한국여성신학* 46 (January, 2001): 10-28.

[112] Ibid., 19-27.

[113] Joach Gnika, *Das Evanglium nach Narkus, Ekk2 마르코복음 2*, trans. 김동완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1), 445.

셋째, 마가복음 예수의 수난사 서두에 예수에게 기름을 부은 한 이름 없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예수의 제자직 명령인 섬김을 실천한 것이며, 인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앞선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114] 유다의 배반과 남성 제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 여성을 통한 인류 구원이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넷째, 16 장 1-8 절에서 선포라는 여성 제자직의 완성을 볼 수 있다. 안식일 후에 세 여성은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았지만, 그의 부활의 소식을 청년을 통하여 선포하라는 명령을 듣게 된다. 마가복음에 시종일관 흐르는 제자직은 수난을 끝으로 남성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115]

그의 글 마지막에서 그는 마가복음에서 여성들은 고난 받는 제자직과 참된 지도권의 본보기로 등장하였다고 주장한다.[116] 마가복음 속 여성들은 예수의 죽음, 장례, 부활의 사도적 목격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고난에 함께 있었고, 예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였으며, 부활을 선포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으로 마가복음의 여성들은 예수를 좇고(막 8:34), 그를 섬기고(막 9:35), 그가 죽기까지 함께 있으며(막 3:14), 그와 길을 걸어가는(8-10 장) 참 제자직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성서학에서 초기 예수 운동 가운데 여성들이 제자로서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성서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실현의 과제로서 오늘날 성평등을 위한 교회의 실천 과제가 예수 운동에 기초한 성서 해석에 근거한다는 것을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평등을 수행하는 성평등한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는 이상적 모델로서 여성교회의 비전을

---

[114] 이순임, 26.
[115] Ibid., 27.
[116] Ibid., 28.

적극 수용하고, 양성평등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현하기 위해 성평등 교육 목회를 실천적 목회의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C.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교육 과제들

세계 교회 협의회는 1990 년 '교회의 일치와 인류 공동체의 갱신'에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최종적인 도래를 향하여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미리 맛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그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117]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수동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사람을 현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성평등의 과제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한 이 세상에서의 교회 존재 양태인 코이노니아, 디다케, 레이투르기아, 케그리마의 영역에서 그것을 표현하도록 성평등 교육목회 커리큘럼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 성평등 교회 공동체와 코이노니아

마리아 해리슨은 공동체의 궁극적 목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치와 통일을 향한다고 말하였다.[118] 그것의 핵심은 사랑이며, 이것의 양태는 세 가지 양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그 세 가지 양상은 다스리는 실재, 죄를 깨닫는 실재, 그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불완전한 실재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양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교회의 양태가 성평등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 즉 성적 차이, 인종적 차이, 사회 계급적 차이, 나이의 차이 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차이가 우열이 아니라, 서로 다름과 공통됨을 인정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

[117] 세계교회 협의회, *역대총회 종합 보고서*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3), 150-152.
[118] Mar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91.

있는 교육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평등적 코이노니아 실천을 위해서 마틴(Martin)이 제기한 것과 같이 숨겨진 성차별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에 대한 민감한 교육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코이노니아적 실천은 서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 속에 각 개인의 서로 다른 경험들을 나누고, 공유하며,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지지와 격려하는 공동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코이노니아적 실천 운동 속에서는 참여와 현존(Presence), 수용성(Receptivity), 책임성 (Responosibility)을 갖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2. 성평등 교회 공동체와 레이투르기아

마리아 해리슨은 기도의 4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19]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선 채로 세계 속에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영성 (Spirituality)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영성은 정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동안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인 억압과 차별이 전통교회 역사 속에서 여성들에게 그리고 힘 없는 자들에게 행하였던 과거의 죄들을 철저하게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남성들의 경험 중심의 예배 의식과 고백 그리고 기도의 생활을 비판하고, 여성들의 경험과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양성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행위를 설계하고, 커리큘럼 자원들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성평등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예배 행위와 고백 그리고 교회의 문서와 기도 등에서 성차별을 할 수 있는 언어, 그림, 표현 그리고 여성을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는 설교 등에 대하여 성찰과 비판을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119] Ibid., 124-129.

3. 성평등 교회 공동체와 디다케

마리아 해리슨은 3 가지 가르침의 과제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120] 첫째는 가르침이 일어나는 광의적 환경(A Wide Range of Settings)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르침이 가르치는 교사의 주도적인 것 뿐 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는 가르침의 형태들이 다양한 목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주제라는 표제 아래 소주제의 폭넓은 범위에로 토픽을 접근해 갈 필요 등이 있다.

이러한 마리아 해리슨의 디다케 커리큘럼의 이해는 성평등을 위한 디다케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적절한 구조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위임 받은 교사 중심이 아니라 학생과 그들의 다양한 경험이 학습의 내용과 인식의 방법이 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경향의 교육 방법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목록과 주제와 소주제의 교육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남성중심이 아니다. 그 과제는 여성 교육전문가들과 여성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그들의 관심 주제와 소주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초대 예수 공동체에 있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지혜와 공동체에 가르치는 권위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지위와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초대기독교 공동체의 전통과도 일치하는 디다케 커리큘럼이 될 것이다.

4. 성평등 교회 공동체와 케리그마

마리아 해리슨은 케리그마의 커리큘럼 과제들을 언어적인 형태와 연관하여 3 가지로 제시하였다.[121] 그것은 제사장적 경청(Priestly Lisenting), 예언자적 발언(Prophetic Speech), 정치적 변호(Political Advocacy)로서 성령의 대언자 등이다. 이러한 케리그마의 커리큘럼의 과제는 신약 성서에 가려진 여성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서, 남성중심의 질서와 신학의 안경을 벗고, 가부장제적

[120] Ibid., 143-150.
[121] Ibid., 166-172.

교회 제도의 성차별의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예언자적인 여성 사역이 요구된다. 또한 성차별과 성고정관념을 교회 안에서부터 극복하기 위하여 남성 지도자들의 정치적 변호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5. 성평등 교회 공동체와 디아코니아

마리아 해리슨은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협의적 의미로 이해하였다. 그는 이 사역은 함께 나누는 긍휼의 능력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가지 형태를 취한다고 하였다.[122] 그 형태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 사회적 의식(Social Ritual) 그리고 사회적 능력 부여(Social Empowerment)와 사회적 입법들(Social Legistlation)이다.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커리큘럼 이해는 보다 성평등적인 교육과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범위의 섬김과 봉사는 세상적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상적인 섬김과 봉사는 교회의 세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데 좋은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교회 공동체의 성평등의 디아코니아적 사명은 사회적인 성평등 정책과 국제적인 성평등 운동과 연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사명은 단지 교회 안에서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세상의 주요한 주제들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구원들을 참여와 책임을 부여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의 영역과 사회적 성평등 의식의 전환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회는 개발하고 제시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122] Ibid., 180-194.

또한 이러한 5 가지 형태의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양태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 그리고 세상적인 차원에서 성평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과 사역 개발을 위한 커리큘럼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실현의 방향과 목적에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D.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

나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 설계를 마리아 해리슨이 제시한 예술가적 커리큘럼 설계를 제안하고, 수용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전통적인 타일러 교육과정 설계 이론을 수용하여 교육의 목적을 서술하는데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교육 목회의 목적 진술은 교육의 방향성과 지속성 그리고 계획성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마리아 해리슨은 예술가적인 커리큘럼 설계를 위해서 광범위한 커리큘럼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하고, 예술과 상상력의 커리큘럼 디자인 작업이라고 말하였다.[123] 그것들은 묵상 혹은 숙고(Contemplation), 착수(Engagement), 형태 부여(Formgiving), 출현(Emergence), 그리고 방출(Release)의 단계이다.

1. 묵상 혹은 숙고

묵상 혹은 숙고의 단계에서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가 실천하였던 사역들에 대해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층과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청취하는 것이다. 그 청취는 5 가지 기능적인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는지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 존재하였는지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 나가기 위한 방향성과 교육의 목적 진술을 확정해야 한다.

---

[123] Ibid., 209.

a. 다양한 층과 여러 사람의 여성 성차별 의견 청취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층과 여러 사람의 의견 청취의 과정은 성, 인종, 계급, 나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 그리고 방문자 그룹을 중심으로 그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 많은 시간을 사용하여 그들의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이 과제는 다양한 층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개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여성의 경제력 등에 대한 담론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b. 보이지 않는 숨겨진 커리큘럼 찾기

이 과정의 과제는 그 동안 교회 공동체가 수행하였던 사역들을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어떤 사역을 왜 하게 되었고, 그 사역은 어떻게 수행하며 어떤 결과를 생산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회의 5 가지의 사역의 과제 그리고 개인적, 사회적, 세상적 차원에서 사역들 속에 어떤 명시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이면서 세상적인 커리큘럼의 형태를 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그 동안 교회 공동체의 사역 중 여성에 대한 사역이 교회의 5 가지의 존재 양태에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였고, 또한 그러한 여성의 역할을 가로 막는 보이지 않는 차별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한다.

c. 성 평등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교육 방향성과 목적 진술

이 교육의 목적 진술은 한국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의 새 교육 과정에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 목적을 성평등적 요소를 포함시켜 내가 재구성한 것이다.[124] 왜냐하면, 교단의 21 세기의 교육 목회 방향에 따라 모든 교재들이 제공됨으로 그 교재 속에 성평등적 요소를 포함하여 재구성하여 교육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이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모든 성(Gender), 인종(Race), 계급(Level), 나이(Age) 등 서로 다름이 있지만, 모두 평등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룩하셨고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을 **성평등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과 교회, 이웃 사회와 자연 및 세계와 바른 관계를 이루고,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지닌 **모두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하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위 교육 목적에 성평등적 요소를 포함하여 강조한 것은 첫째, 모든 세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이해를 위한 4 가지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서술 내용을 포함하였다. 모든 세대는 광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속에 어떤 위치, 성, 그리고 인종과 나이에 따라서 서로 억압과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시켜 서술하였다.

둘째, 교회의 성격을 단순히 신앙공동체로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표현으로 전환하였다. 여기에서 ‘성평등’이 포함된 교회 혹은 백성, 공동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

[124] 고용수, *새교육과정자료집* (서울: 예장총회 교육부, 1999), 40.

셋째, 가정에 대한 서술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라고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것은 전통적이고 핵가족의 형태만이 가정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적으로 수용함으로서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에서 자유하는 가정을 지지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표현에 '그의 의로서 성평등을 실현'이라는 말로 바뀜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성평등의 실현이라고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나는 이러한 교단의 교육 목적 속에 양성평등과 성에 대한 보다 민감한 언어를 포함시킴으로서 교회에서 성평등 교육이 교회의 모든 영역과 교재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2. 착수

이 과정의 과제는 커리큘럼을 창출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은 지속할 것과 버리는 것을 구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125] 이 과제는 교회 커리큘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재의 교회 사역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목적에 근거하여 버릴 것과 보존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단계의 과제는 앞 단계에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수행하였던 사역들을 5 가지의 영역과 3 가지 차원(개인과 사회 그리고 세계)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자료로 수집하고, 교육의 목적 진술을 기초하여 부합된 것은 보존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버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제를 수행할 때, 교육의 책임자는 남성만이 아니라 성인지 여성 교육전문가를 할당제로 참여하여 성평등적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형태 부여

이 과제는 전 단계에서 성평등 교육의 교육 목적 진술에 기초하여 보존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였는데, 그중에 보존할 것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확대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이다.[126]

---

[125] Marria Harris, *Fashion Me A People*, 214.
[126] Ibid.

이 과정에서 보다 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성인지 여성 교육전문가들이 각 영역에 할당제로 참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성평등 교회 공동체는 코이노니아, 디다케, 레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 등의 사역을 남성중심이 아니라 여성적 경험과 인식의 방법이 포함된 성에 민감한 방법으로 사역을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하고 보살핌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남성들의 전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도 여성들의 능력의 한계를 보강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출현

이 과정은 묵상과 착수 그리고 형태 부여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이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로 성평등 교회 공동체에게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 과정은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몇년의 시간을 사용하여 커리큘럼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전 공동체가 인정하고 수용하는 축제의 시간인 것이다.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위한 커리큘럼의 설계와 디자인의 과정에는 남자와 여자 교육 전문가들과 교회의 동수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성이 평등하게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추진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한 쪽이 불리하거나 불편하다고 거부한다면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양성평등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와 디자인을 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그것이 완성 되었을 때, 축하하는 축제의 마당을 만들어 그 커리큘럼을 선포하고 순종을 약속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5. 방출

이 과정은 마지막 단계로서 포괄적인 공동체의 삶 속에서 양성평등 교육 커리큘럼이 진행되도록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커리큘럼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도

자유롭게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그동안 양성평등 커리큘럼을 만들기까지 묵상, 착수, 형태부여, 출현의 과정에 참여한 남녀 교육전문가와 교회의 동수 지도자들이 이 과정에서 양육되고 교육되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성령에 의지하고, 성평등한 커리큘럼 안에서 성차별과 성역할의 고정관념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성차별이 적어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의 성급한 판단으로 사역에 주도권을 가지고 개입한다면, 새로운 억압과 차별의 역사로 성령의 일하시는 것을 제한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커리큘럼의 계획과 설계 과정은 예술적인 작업이요, 많은 시간동안의 갈등과 대립의 과정도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단순한 논리나 복합적인 역학관계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상상력이 담긴 교육 과정이므로, 그 결과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정형화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성평등 교육 과정을 마리아 해리슨의 예술작업으로서 커리큘럼 계획과 디자인 이론을 사용한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예술가적 작업으로서 성평등 교육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은 남성중심의 교육 설계 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그의 커리큘럼의 디자인 과정을 통하여 여성차별과 성역할 고정 관념이 성에 민감한 인식을 하도록 의식의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Chapter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나는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인 결론과 제언을 4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것은 연구 과정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변화는 어떤 연구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움의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나는 배움의 과정에 내가 배우게 된 것들과 그 중 가장 중요한 배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할 것이다. 이런 배움이 이론에 끝나지 않도록 나는 그것을 어떻게 나의 목회 현장에 적용해 갈 지 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 과정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것이다. 나는 이 연구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목회자이지만 동시에 실천신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다. 나의 이러한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보면, 이러한 변화는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첫 번째 실천신학 수업시간을 기억한다. 그 때 수업을 담당하셨던 교수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여러분은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실천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는 그 교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실천신학 수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실천신학자가 된다'고 하는 말을 나는 이해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실천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이 논문을 쓰고 난 후에 그 교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 말은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나 사건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천신학자의 안목과 연구 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실천신학자로서 현장의 문제나 사건들을 관찰하고, 기술하며, 인터뷰 등을 통하여 사건을 기록 정리하고 분류하는 경험적 조사 단계를 배웠다. 그리고 난 후에 나는 '왜 그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대하여 실천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해석하는 과정의 단계를 배웠다. 그리고 나는 신학적 개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과제를 찾는 과정 또한 배우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 과제 혹은 해결적 대안을 어떻게 목회적 리더십을 수행할지 그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천신학자적 연구는 이론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습득한 연구자 안목을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논문을 쓰면서 실천신학자가 되었고,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는 전략적 리더십까지 생각하는 실천신학자이며서 목회자가 되었다. 이러한 나의 변화는 이 과정에서 공부하고 실천신학적 논문을 작성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난 변화이다.

둘째, 나는 실천신학자로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던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이런 실천신학자로서의 나의 변화는 연구 주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주요 연구 개념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연구의 주제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라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 이러한 추상적 고민의 시간을 통하여 나는 '이민 교회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와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갈까?' 라는 실천신학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다. 이런 광범위한 질문은 클레어몬트에서 공부한 실천신학과 페미니스트 신학과 교육에 기초한 지식을 통하여 구체적인 연구 주제와 개념들을 검토하고 그 방향성과 관점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문제들 가운데 성적인 문제(Gender Issue)를 연구의 핵심 주제와 연구 영역으로 잡게 되었다. 이러한 핵심 주제 선정은 교회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의 문화와 신학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의 성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성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였다는 인식 때문이다. 나의 이러한 연구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페미니스트 교육(Feminist Pedagogy)의 선행적 연구를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는 교회 안에 성평등 교육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의 영역을 페미니스트 기독교 커리큘럼(Feminist Christian Curriculum)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나는 그 대안을 성평등 공동체 형성을 위해 페미니스트 기독교교육 과정을 지역 교회가 개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나의 실천신학자로서의 연구 과정은 목회 뿐 만이 아니라, 실천적 대안을 찾는 연구 과정을 통하여 실천신학자로서의 변화를 하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이 연구 과정을 통하여 나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론적 연구 뿐 만 아니라,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공동체 교육으로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문제까지 생각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여정은 내가 실천신학자로 변화할 수 있는 학습의 과정을 제공해 주었다.

셋째, 나는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어떤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배움이 무엇인가?' 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나는 외적으로 실천신학자로서 연구하는 안목을 갖추는 것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많은 새로운 학문적 개념들과 신학과 교육 사상들을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 성을 인지하는 자의식과 개선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받았다. 처음 이 논문을 시작할 때, 나는 교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주제로 연구를 하였다. 그 때 내가 교회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의 문제와 사건 그리고 여러 상황을 어떤 개념으로 규정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여성의 목소리 없음 현상'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이 개념은 여성 개인의 목소리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와 사회에서 억업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자신의 목소리 회복은 여성들의 독립과 주체적 자아의 문제와 연결된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개념을 알게 되면서, '여성은 말이 많다'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에 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들이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문화적인 억압 때문에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적인 목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면서 생긴 왜곡된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러한 부정적 고정 관념으로 인하여 생기는 성적 차별의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교육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그 대안을 찾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여성들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인 자아를 되찾을 수 있도록 페미니스트 교육(Feminist Pedagogy)을 중심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의 과정 속에 숨겨져 있는 성차별적 요소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교육이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재생산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연구들이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 활발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의 리더인 항존직을 교육하는 교재를 선정하여 페미니스트 교육적 관점에서 비판적 분석을 하였다. 나는 이 교재에 숨겨진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의식과 구조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페미니스트 관점의 교육적인 성찰없이 제시된 교육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여성 차별적인 교육이 교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교육 과정은 또 다른 차별을 재생산하여 보다 강화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인 교회로 더욱 더 굳어지게 될 것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나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교회를 해체하고 대안적 교회론인 여성교회 모델을 통하여 성평등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회중 교육 과정의 방향을 점검하고 페미니스트 교육의 방향을 수용하기 위하여 3 가지 교육 방향(정체성, 상황에 대한 바른 지식, 리더십)을 설정하였다. 그것은

교회가 생존만이 아니라 평등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는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성인지 의식을 갖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동등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든 회중을 부르셨다는 의식을 갖도록 정체성 교육을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든 회중 교육 과정 안에 보이지 않는 성차별 요소들이 있다는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성차별 의식과 구조 그리고 제도 등에서 문제들을 찾아내도록 바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인지 의식을 갖고 있는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는 페미니스트 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그 예술적 교육 과정(Art Curriculum for Femnist Pedagogy)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 과정은 다층적인 구성원인 회중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그것은 교회 구성원인 회중은 어떤 특징한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회중이 주체인 것이다. 이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체적인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다. 비록 나의 연구의 제한성 때문에 다층적인 회중들의 성적 차별에 대하여 이야기를 어떻게 이끌어 내고 경청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담론들 속에 성평등 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 진술의 중요한 핵심 자료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자료 삼아 우리는 다시 깊은 묵상 (Contemplation)을 통하여 구체적인 목적 진술을 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교회 공동체는 그 동안 교회가 수행해 왔던 사역들 5 가지의 카테고리(코이노니아, 레이투르기아, 디다케, 케리그마, 디아코니아)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난 후에 목적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대로 유지할 것과 정리할 것을 심의 하는 착수(Engagement)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성인지 의식을 갖고 있는 회중들이 적절하게 참여해야 한다. 이후 과정인 형태의 부여(Forgiving) 와 출현(Emergence),

그리고 방출(Relese)의 과정에도 성인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연구에서 나는 성평등 교회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인지 의식을 갖고 있는 인재를 개발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넷째, 나는 이 실천적인 연구가 나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나는 이러한 나의 연구 결과가 목회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인지 의식을 갖고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재 개발은 목회 현장에서 여성 사역을 중심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

나는 이 연구가 목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4 가지 순환전 단계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그 동안 여성 사역을 담당하였다는 다중적 회중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지해 주고, 격려와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인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회중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조사의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는 여성 사역자들과 회중들이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억압되었던 여성들이 그들의 독립적인 사역에 참여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발견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다. 이 때 교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 대하여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사역에 대하여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통하여 반추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숨겨진 성차별의 요소들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의식화의 단계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 의식을 다른 회중들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성차별의 요소가 제거된 동등한 사역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4 단계의 순환적 과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차별 문제 의식을 인식할 수 있는 여성들과 관련된 사역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차별의 문제의 인식과 공감대를 쉽게 얻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성인지를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단계적 접근과 여성 사역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인 접근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성평등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한서]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_.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고용수. *새교육과정자료집*. 서울: 예장총회 교육부, 1999.

______. *하나님의 나라와 교육목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4.

김경희.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서울: 푸른사상, 2004.

김영애. *여성신학의 주제 탐구*.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______. *한국여성신학의 지평*. 서울: 한울출판사, 1995.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충성된 일꾼들: 피택항존직 교육 교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2013.

박순경. *통일 신학의 여정*. 서울: 한울 출판사, 1992.

배은미. *여성주의 기독교교육*.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2014.

세계교회 협의회. *역대총회 종합 보고서*.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3.

손승희. *여성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손원영. *기독교교육과 프락시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이은선.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여성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199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하네요*.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양성평등위원회, 2007.

[영서]

Eisner, Eillot W. *The Educatuional Imagination*. NY: Macumillan Co., 1979.

Fiorenza, Elisabeth Schusseler. *Bread Not Stone: The Challenge of Feminist Biblical Interpretation.* Boston: Beacon Press, 2002.

_________________________. *But She Saint; Feminist practic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Boston: Beacon Press, 1992.

_________________________. *Discipleship of Equals; A Critical Feminist Ekklesia-Logy of Liberation*. NY: The Crossroad Company, 1993.

________________________. *In 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 NY: The Crossroad Company, 1994.

Firet, Jacob. *Dynamics in Pastoring*.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6.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NY: Continuum, 1981.

Gore, Jennifer M. *The Struggle for Pedagogies: Critical and Feminist Discourses as Regimes of Truth*. NY: Routledge, 1993.

Groome, Thomas H.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Harper San Francisco, 1991.

Harris, Marria. *Teaching and Religious Imagination: An Essay in the Theology of Teaching.* San Fransisco: Haper and Row, 1987.

___________. *Teaching for Change*. NY: Berin&Garvey Publishers, 1988.

Heckman, Shirley & Iris Ferren. *Creating the Cngregation's Educational Ministry*. Elgin: Breathren Press, 1976.

Jagger, Alisom M. *Feminist Politics and Human Nature*. Susex: The Havester Press, 1988.

Luke, Carmen & Jennifer Gore. *Feminism and Critical Pedagogy.* NY: Routledge, 1992.

Mcfague, Sallie. *Models of God*.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____________. *The Body of God*.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Miller, Donald E. *Story and Context: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Rusell, Letty M. *Chruch in the Round;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Church*.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3.

Taylor, Marvin J.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1966.

The Corperation Curriculm Project. *The Church's Educstional Ministry: A Curriculm plan*. St. Louis: Bethany Press, 1965.

Weiler, Kathlee. *Women Teaching for Chang: Gender, Class & Power*. MA: Bergin & Gavey Publishes Inc., 1988.

Wyckoff, D. Campbell. *Theory and Design of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PE: The Westminster Press, 1961.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MI: Wm B. Eerdman Publishing Co., 1972.

[번역서]

Gnika, Joach. *Das Evanglium nach Narkus, Ekk2 마르코복음 2*. Translated by 김동완.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1.

Harris, Maria.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교육목회 커리큘럼.* Translated by 고용수.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7.

Lordfink, Gerhard. *Wie hat jesus Gemeinde gewollt?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Translated by 정한교. 서울: 분도출판사, 1996.

Neuger, Christie Cozad. *Counseling Women A Narrative: Pastoral Approach 여성들을 위한 목회 상담*. Translated by 정석환. 서울: 한들 출판사, 2002.

Osmer, Richard.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네 가지 중심 과제.* Translated by 김현애 and 김정형. 서울: WPA, 2012.

Solle, Dorothee. *Lieband Arbeit 사랑과 노동*. Translated by 박순경.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엘리스 넬슨. *Congregations: Their Power to Form and Transform 회중들: 형성하고 변형케 하는 회중의 능력*. Translated by 김득렬. 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6.

[국내학술논문]

김명용.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장신논단* 7 (December, 1991): 156-178.

김행. "양성평등, 왜 필요한가?" *한국가정과 교육학회* (November, 2014): 13-32.

박순경. "여성신학, 교회개혁, 사회변혁." *한국여성 신학* 42 (June, 2000): 38-67.

박순경. "하나님의 나라와 여성교회." *기독교사상* 37 (January, 1993): 183-210.

성종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비전." *장신논단* 30 (December, 2007): 79-109.

송혜경. "신약 외경에 나타난 마리아 막달레나." *Catholic Theology and Theough* 70 (December, 2012): 47-93.

신미식. "여성해방 교육론이란 무엇인가." *여성과 사회* 6 (May, 1995): 184-203.

이순임. "마가복음에 나타난 여성 제자직." *한국여성신학* 46 (January, 2001): 10-28.

임희숙. "한국 교회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기독교교육 과제."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61 (January, 2009): 271-272.

정기문. "두 마리아에 대한 묘사를 통해본 복음서들의 여성관." *서양고대사연구* 37 (April, 2014): 105-132.

정애성. "E.S. 피오렌자의 동등자 제자직." *여성신학* 27 (Spring, 1999), 92.

조경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17 (January, 1999): 3-17.

조경원. "젠더와 교육." *여성연구논집* 17 (April, 2006): 29-62.

[해외학술논문]

Houston, Barbar. “Gender Freedom and the Subtleties of Sexist Education.” *Education Theory* 35 (November, 1985): 359-369.

Fisher, Berenice. “What is feminist Pedagogy?” *Radical Teacher* 18 (August, 1981): 20.

Roger W. B. Jr., “Curriculum Alternative for Christian Education.” *Review and Expositor* 90 (May, 1993): 480.

[기타]

Tistory. "프레이리와 대화하기." *Tistory*. Accessed January 10, 2017. http://www.nomadlab.tistory.com/m/59.